

[기획] >> 4면
기숙사 공유 공간

[특별기획] >> 6면
이원화캠퍼스

[사회문화] >> 9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학술] >> 12면
노란봉투법



한 지붕 아래 두 집 살림, 더 나은 이원화 캠퍼스로 발돋움 하기 위해선

우리학교가 실질적인 이원화캠퍼스인지에 대한 학생과 외부인들의 인식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그렇다면 분교를 이원화캠퍼스로 품은 타 대학의 상황은 어떨까.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분캠퍼에서 이원화가 된 학교들의 현황과 우리학교의 이원화 문제에 대해 알아보자.

▶6면에서 계속

남우현 선임기자 07woohyun@hufs.ac.kr
이승원 편집장 08seungwon@hufs.ac.kr

“샐러리맨의 신화” 윤윤수 회장, 우리학교 졸업식에서 축사

우리학교는 지난달 22일 서울캠퍼스(이하 설캠프)와 글로벌캠퍼스에서 후기 학위수여식을 개최했다. 설캠프 학위수여식은 오전 10시 설캠프 미네르바 콤플렉스 오바마홀에서 학부 및 대학원 합동으로 열렸다. 이날 행사엔 윤윤수(사회·정외 66) 미스토홀딩스(Misto Holdings) 회장(이하 윤 회장)이 졸업생 후배들에게 축사를 전했다.

윤 회장은 평범한 샐러리맨(Salary Man)으로 사회에 첫발을 내디뎠다. 지난 1991년 휠라코리아(Fila Korea) (現 미스토코리아(Misto Korea))를 설립한 그는 지난 2007년 휠라 본사를 인수해 세계적 스포츠 브랜드로 성장시킨 자수성가형 기업가다. 현재는 골프용품 기업 아쿠슈네트(Acushnet)를 보유한 미스토홀딩스 회장

을 맡고 있다. 한편 윤 회장은 지난 7월 14일 설캠프 스마트도서관 휠라 아쿠슈네트홀(Acushnet Hall)에서 우리학교 명예 경영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는 해당 수여식에서 세계적 경영 리더십을 통해 대한민국 산업 발전과 국제화를 선도하고 사회 공헌으로 공공 가치를 실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번 축사에서 윤 회장은 “실패는 인생의 종착지가 아닌 더 큰 가능성의 출발점이다. 수많은 좌절과 어려움은 결국 새로운 도전과 성장을 위한 자산이 될 수 있다”며 “△성실△정직△페어플레이(Fair Play) 정신을 지킨다면 행운은 반드시 여러분의 편이 될 것이다”고 전했다. 또한 “이제 무대는 국내를 넘어 세계로 열려 있다”며 두

려워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새로운 시점으로 삼을 것을 강조했다.

우리학교는 “윤 회장은 우리 대학의 자랑스러운 동문이다”며 “샐러리맨의 신화이자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낸 진정한 성공의 주인공으로서 졸업생들에게 귀감이 될 것이다”고 특별 축사의 의미를 밝혔다.

이번 학위수여식에선 △박사 55명△석사 455명△학사 1,398명으로 총 1,908명의 졸업생이 학위를 수여 받았다. 행사 현장엔 △가족△동문△친지가 함께해 포토부스(Photo Booth)와 포토월(Photo Wall)에서 기념사진을 남겼다.

송주원 기자 11juwon@hufs.ac.kr

우리학교 진로취업지원센터, 기업체 인사 관계자 초청 간담회 개최

우리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 진로취업지원센터(이하 진취센터)는 지난달 5일부터 6일까지 동원리더스아카데미(Dongwon Leaders Academy) 본관에서 ‘기업 인사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기업 인사 관계자 간담회는 우리학교에서 진행해 온 행사로 이번 간담회는 건국대학교 및 세종대학교와 연합해 진행한 대규모 행사였다. 이번 간담회는 대학의 평판 제고와 인사 관계자 네트워크 구축을 목적으로 마련됐으며 주요 기업 인사 부서 실무자 40여 명이 참석했다. 해당 행사에서 우리학교 진취센터는 지난해 간담회에서 확인된 기업 요구 역량인 △산업 및 기업 이해도△외국어 능력 △인턴십(Internship) 및 산학 협력 경험 등을 반영해 현장실습 기회를 확대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아울러 해당 프로그램에선 기업체 인사 관계

자들에게 추천 채용을 요청해 우리학교 학생 중 기업에 맞는 인재를 학교 차원에서 선별해 기업에 추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취업에서의 기회를 마련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인사 관계자는 “우리학교 학생들이 보유한 언어 능력에 산업 맞춤형 융합 역량을 더한다면 더욱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며 “특히 인공지능 활용 역량을 강화할 학습 기회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 지연 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 본부장 또한 “이번 간담회는 대학과 산업계가 협력해 인재 양성 성과 취업 지원에 시너지(Synergy)를 만들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우리 대학의 우수한 인재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재언 기자 11jaeeon@hufs.ac.kr

금융의 모든 순간
NH농협금융

사람들은 돈 버는 일에 투자라는 말을 붙이지만

우리는 좋아하는 일에 열심일 때도 투자라는 말을 붙이기로 했습니다

깊이 좋아하는 것만큼

당신을 성장시키는 건 없으니까요

당신의 삶도

당신의 자산도 성장하는 투자

N2, 와 함께 시작해 보세요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당신의 투자 문화가 되다

N2,

한국농협협회컨설팅 선정
2025년 소비자 가장 추천하는 브랜드
증권부문 4년 연속 1위

우리학교 일본연구소,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기념 문화공연 및 국제학술행사 개최

우리학교 일본연구소는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국립순천대학교(이하 국립순천대) 글로벌(Glocal)일본연구소△국립순천대 인문사회 디지털융합인재양성사업단△한국어일본학회와 공동으로 지난달 13일과 14일에 각각 특별한 문화 공연과 국제 학술 행사를 개최했다.

우리학교 서울캠퍼스(이하 설캠) 사이버관 대강당에서 지난달 13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유네스코(UNESCO) 무형문화유산인 아이누(アイヌ) 민속무용을 전승해 온 '삿포로우포포(札幌ウポポ)보존회'의 첫 내한 공연이 열렸다. 행사엔 △국립순천대△동국대학교△아주대학교 등지에서 일본학을 전공하는 학생뿐 아니라 민속무용에 관심이 있는 어린이와 중장년층도 참석해 250석 객석을 가득 채웠다. 공연에선 △동물의 움직임을 모방한 학 춤△바람과 시냇물 소리를 표현하는 아이누 민족의 전통 악기 입 하프(Harp) 연주△소나무가 폭풍우로 흔들리는 모습을 머리카락의 움직임으로 표현한 흑발 춤△신들에게 경의와 감사를 나타내는 인사 춤△정성을 담아 빚은 술을 거를 때 부르는 술 거르기 춤 등 다양한 프로그램(Program)이 진행됐다.

공연 시작에 앞서 오후 1시 30분부터 2시 20분까지 우리학교 설캠 교수회관 2층 강연실에서 '아이누와 조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이야기'를 주제로 한 특강이 개최됐다. 특강에 나선 박용구 우리학교 일본연구소 인문사회연구소사업단 단장(이하 박 단장)은 "제국의 근대 속에서 식민지라는 공통 경험을 겪은 두 민족의 서사를 성찰해 보는 소중한 자리이다"라고 행사를 설명했다. 1부 공연 직후 2부에선 아이누 문화 체험이 마련



▲출처: 우리학교 일본연구소

됐다. 풍자를 기뻐하며 곡식이 많이 생겼음을 기뻐하는 메뚜기 춤과 한 남자를 두고 두 여자가 벌이는 해학적인 미남 춤 등 다양한 춤과 연기를 체험할 수 있었다.

한편 지난달 1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설캠 오바마홀 국제회의실에서 '국제학술심포지엄(Symposium) : 포스트(Post)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와 서벌턴(Subaltern)* 연구'가 열렸다. 행사 전 박 단장은 "한일 양국의 역사적 경험과 사회적 과제를 '서벌턴'이라는 개념을 통해 교차

분석함으로써 '인권의 주류화'를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학술 및 정책적 비전을 탐색하려는 자리이다"며 심포지엄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그는 "이러한 논의는 양국 간 우호 협력 증진을 넘어 국제사회의 평화와 지속 가능한 연대를 도모하는 데에도 학문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며 기대를 밝혔다.

이번 학술 행사는 △국립순천대 글로벌일본연구소△일본의 식민지문화학회△한국어일본학회와 공동으로 주최했다. 주요 참석자로는 △경북대학교 김창록△메이저대학교(明治大学) 고케쓰 아쓰시(纈纈 厚)△명지대학교 광명캠퍼스△공산대학교(山東工商學院) 조수봉(肖樹峰)△상명대학교 이한정△이치카와 모리히로(市川 守弘) 변호사△전남대학교 김용의△제주대학교 소명선 등의 연구자들이 있다. 제1부에선 △포스트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와 인권 패러다임(Paradigm)으로의 전환 : 한국의 입장에서△미결의 식민지 지배책임과 인권·공립·미래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인권△홋카이도(北海道)의 식민지 지배와 아이누의 권리가 다뤄졌다. 제2부 제1발표장에선 '포스트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와 서벌턴 연구'가 제2발표장에선 특별 강연회로 '연구자의 길, 학문의 시간'이 진행됐다. 마지막으로 제3부에선 종합 토론으로 행사를 마무리 지었다.

*서벌턴(Subaltern): 제국 식민지의 권력 계층과 제국의 대도시 고향에서 △사회적 △정치적△지리적으로 배제된 식민지 인구

송주원 기자 11juwon@hufs.ac.kr

우리학교 송도캠퍼스 설치 계획 교육부 승인 2027년 개교 목표

우리학교는 지난 1일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조성 중인 송도캠퍼스(이하 송도캠) 설치 계획에 대해 교육부 대학 설립 및 개편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승인에 따라 우리학교 송도캠은 총 43,595㎡(약 13,188평)의 교지에 2개 동과 6,241㎡(약 1,888평) 규모의 교사에서 기존 글로벌캠퍼스(이하 글캠) 입학정원 일부를 활용해 매년 100명의 학생을 선발할 예정이다. 송도캠에는 글로벌바이오&비즈니스(Global Bio&Business) 융합학과와 외국인 자유전공학부가 신설된다. 해당 학부들은 산업계 인력 수요와 고교 진학 수요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기획됐다. 해당 학부들을 통해 바이오산업을 중심으로 글로벌 비즈니스 거점으로 성장하고 있는 송도 지역의 강점을 우리학교의 글로벌 교육 노하우와 결합해 '바이오 중심 글로벌 지역 특화 전문인재 양성'의 요람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글로벌바이오&비즈니스융합학부는 송도 지역 바이오클러스터(Bio Cluster)의 다양한 인력 수요에 대응하고 세계 시장에서 바이오 비즈니스를 선도할 융합형 실무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에



대해 우리학교 재학 중인 A씨는 "경영학과 생명공학 중 하나를 이중 전공으로 신청하고자 했었다"며 "둘 중 무엇을 선택할지 고민이 컸는

데 신설 글로벌바이오&비즈니스를 전공을 통해 두 가지 역량을 모두 갖출 수 있게 됐다"고 기대했다. 이어 "기존에 조성된 신도시 인프라까지 결합된다면 캠퍼스 분위기를 더 활기차게 만들 것 같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편 송도캠에선 우리학교가 보유한 전문적 외국인 유학생 관리 및 교육체계를 기반으로 외국인 자유전공학부를 운영할 예정이다. 우리학교는 우수 외국인 인재를 양성해 학령인구 감소 등 인구구조 변화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재언 기자 11jaeeon@hufs.ac.kr

우리학교 대학혁신지원사업 성과 평가 2년 연속 최고 등급

우리학교는 지난달 6일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의 성과 평가에서 2년 연속 최고 등급을 달성했다. 지난해 제2주기 성과 평가에서 '교육 혁신성과' 부문 S등급과 '자체 성과관리' 부문 A 등급을 받아 총 114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지원받았던 우리학교는 제3주기 사업의 첫해인 이번 해에도 최고 등급을 유지하며 우수한 교육혁신 성과를 입증했다.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기본 역량을 강화하고 특성과 전략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지원하는 일반 재정 지원 사업이다. 특히 제3주기(2025~2027)부터는 연차별 성과 평가가 도입됐으며 이번 해엔 제2주기 성과와 제3주기 계획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사업비를 배분했다.

이번 평가에서 우리학교는 △외국어 및 외국학 중심 교육혁신△학생 선택권 강화와 맞춤형 지원 체계△IR센터(Institutional Research Center) 데이터 기반 성과관리 고도화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진로지도 교과 및 비교과 통합 운영 체계△학생 개인의 성장 단계에 따른 전공 설계 지원 프로그램△SG(Study Group) Unit 지도교수제가 우수 사례로 주목받았다. 또한 △교육 역량 인 증 체계에 대한 구체적 계획△기초학문 및 교양교육 내실화 전략△전공 자율 선택제 도입과 연계된 전공 및 진로 탐색 지원 계획에 있어서도 탁월성을 인정받았다.

우리학교는 이번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글로벌 창의 융합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생태계 고도화'를 제3주기 핵심 비전으로 제시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교육과정 및 수업 내실화△기초 및 교양교육 혁신△맞춤형 지원체계 고도화△인공지능 기반 외국어 블렌디드 러닝 모델(Blended Learning Model) 개발△지속가능한 행정 및 재정 지원체계 구축△학생 중심의 학사 유연화라는 5대 전략과 45개 실행 과제를 수립했다. 주요 추진 과제론 △전공 자율 선택제 안착을 위한 3D 시스템* 도입△전공 탐색 지원△중도 탈락률 감소 전략 수립△휴스케어(HUFS CARE)** 통합 지원 체계 고도화△4A+*** 생애주기 진로지도 체계 구축 등이 포함된다.

박정운 우리학교 총장은 "우리학교는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외국어와 외국학 기반의 차별화된 역량을 바탕으로 미래 사회를 이끄는 글로벌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모든 구성원과 함께 교육혁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3D 시스템: Discover-Design-Drive의 준말
**4A+: △Aspire△Align△Assess△Act의 준말
***휴스케어(HUFS CARE): △Connect△Activate△Reach △Ensure의 준말

송주원 기자 11juwon@hufs.ac.kr

재외동포협력센터가 주최하고 우리학교가 주관하는 '2025 차세대 동포 한국어 집중 캠프'

우리학교는 지난달 1일부터 8일까지 서울캠퍼스(이하 설캠) 재외동포청 산하 재외동포협력센터가 주최하는 '2025 차세대동포 한국어 집중 캠프'를 진행했다. 차세대 동포 한국어 집중 캠프는 외교부 산하 사업으로 이번엔 우리학교가 주관학교로 선정됐다. 이번 캠프는 일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 64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수준별 한국어 교육과 함께 한국의 역사 및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이들의 정체성 확립과 세계 시민 의식 함양을 목표로 삼았다. 일본 관동 및 관서 지역 한글학교 협의회는 캠프에 앞서 현지 한글 교사들을 활용해 참가자와 학부모들 대상으로 사전 연수와 간담회를 운영했다. 사전 프로그램을 통해 본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는 한편 원활한 작동을 돕겠다 취지였다.

이번 캠프에선서울 지역 초등학교 방문△'세계의 날' 재학생들과의 다문화 교류△전통 악기와 놀이를 활용한 언어 학습△한국어 수준별 수업△'한국의 날' 국기 퍼포먼스△한국은행 화폐박물관과 잠실 롯데월드 방문 활동이 진행됐다. 참가 학생들은 해당 행사를 통해 한국어 실력 향상과 더불어 우리나라 사회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또래 친구들과의 소중한 추억을 쌓을 수 있었다.

캠프 총괄 책임자인 안정민 우리학교 한국어 문화교육원 부원장은 "올해는 광복 80주년이자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로 이번 캠프가 참가자들에게 한국어와 문화를 직접 체험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특히 세계 각국에서 온 우리학교 학생들과의 만남을 통해 다양한 문화와 언어를 경험하고 함께 평화의 메시지를 나누는 시간도 될 것이다"고 전했다. 또 "일본 정체성을 가진 아이들이 캠프 후 우리나라에 대해 보인 긍정적인 모습과 학업에 대한 열정을 현지 선생님들에게서 들었을 때 감동을 받아 뿌듯했던 경험이 있다"고 전했다. 김영근 재외동포 협력 센터장은 "이번 캠프는 단순한 언어 학습을 넘어 우리 민족의 뿌리와 문화를 이해하는 의미 있는 여정이 될 것이다"며 "한국어 실력이 늘면 가족과도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모국이 더 자랑스러워질 것이다"고 밝혔다.

임재언 기자 11jaeeon@hufs.ac.kr

매크로로 얼룩진 수강신청... 피해 구제는 한계

지난달 4일 우리학교 4학년 수강신청에서 시스템(System) 및 홈페이지(Homepage) 접속 오류로 약 450명의 학생이 피해를 입는 사태가 발생했다. 우리학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이하 설캠 총학)은 악성 매크로(Macro) 사용으로 인해 수강신청 진행 중에 피해 사례가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총학은 즉시 피해 사례를 취합하고 학교

측에 강력히 개선을 요구했다. 우리학교 재학생 익명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이하 에타) 설캠 자유게시판엔 여러 후속 조치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게시글이 올라왔지만 본부 측은 공식적인 구제책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다. 본 기사를 통해 △수강신청 피해 대응 현황 및 문제점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수강신청 피해 대응 현황 및 문제점

지난달 4일 4학년 수강신청에서 발생한 피해 유형은 크게 두 가지다. 첫 째는 수강신청 시스템의 과부하로 인해 정상적인 수강신청이 불가능했던 경우다. 두 번째는 수강신청 권한 제한으로 시스템 접속 자체가 차단된 경우다. 지난달 24일부터 28일까지 외대학보가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71.4%의 학생들이 해당 문제에 대한 학교 대응이 “매우 미흡하다”라고 응답했으며 그 이유로 △공식 사과 부족 △기술적 재발 방지 대책 부재 △불투명한 가해 학생 징계를 꼽았다. 첫 번째 유형의 피해를 입은 강채연(사회·정외 20) 씨는 “원했던 전공 필수 과목을 신청하지 못했지만 졸업해야 하기에 비인기 과목으로만 신청할 수밖에 없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더 큰 문제는 피해 학생 구제 여부다. 이에 대해 설캠 총학은 “학교 측의 피해자 구제가 소극적이다”고 비판했다. 위의 설문조사에서도 무려 85.7%의 피해 학생들이 “공식 사과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구제 방안과 관련해서도 학생종합지원센터(이하 학종지)는 “서버(Server) 기록이 덮어쓰기 구조이기에 정확한 피해 학생 명단을 특정하기 어렵다”며 “안타깝지만 명단 확보가 없는 상황에서 피해 학생 공식 구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는 매크로 사

용이 확인된 학생들의 수강신청 기록을 당일 즉시 삭제해 부정행위에 따른 강의 수강이 이뤄지지 못하도록만 한 상황이다. 즉 피해 규모는 크지만 피해자를 특정할 기술적 장치가 없는 것이다. 피해 학생 A 씨는 “명확한 증거를 제출했음에도 학교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이와 같이 피해 학생들은 여전히 △졸업 요건 미달 △필수 과목 수강 실패 △학업 계획 차질 등의 피해를 겪는 실정이다.

◆나아가야 할 방향

이런 상황에서 학생들은 여전히 수강신청 대처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이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피해 학생들은 “매크로 사용 학생에 대한 징계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며 제도적 개선과 학교 측의 책임감 있는 태도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처한 각종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선 우선 피해 학생들에 대한 실질적 구제책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정규학기 내 졸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경우 필수 과목을 제때 신청하지 못하면 학위 취득이 지연될 수 있어 학업과 진로에 중대한 영향을 받는다. 피해 학생 B 씨는 “졸업 학점을 채우지 못해 심리적인 부담이나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졸업 학기의 학생을 위한 지원 정

을 늘려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다만 학종지는 해당 문제에 대해 졸업 대상자의 경우 각 학과의 관례적인 조치가 있기에 학과 사무실에 증원을 신청해 보는 것을 권고한다”며 “총학의 요구에 따라 각 학과에 협조 요청 내용이 포함된 공문 발송이 완료된 상황이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시스템 안정화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매크로 문제는 과거에도 반복적으로 제기된 사안이다. 피해 학생 C 씨는 “재발 방지를 위해선 서버를 전면 점검해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학종지는 “해당 문제 보안을 위해 다음 해 1학기부터 사전 수강신청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사전 수강신청 제도는 기존 선착순 방식이 아닌 학생 수요와 학업 계획을 기반으로 과목 배정을 진행해 과도한 접속을 방지하고 공정성을 높이는 제도이다. 시스팀 안정화를 위한 타 대학의 선행 사례도 있다. 연세대학교의 경우 지난 2015년부터 마일리지(Mileage) 선택제를 도입해 수강신청 시 발생하는 △과열 경쟁 △서버 다운 △수강 과목 매매 등의 문제를 개선했다. 마일리지 선택제는 학생에게 학기당 수강 가능한 학점의 4배의 마일리지를 제공하고 학생은 개별 과목 수강을 희망하는 정도에 따라 과목별로 마일리지를 배분하는 제도이다. 마일리지는 학기당 주어지는 일종의 ‘배정점수’로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에 더 많은 마일리지를 투자하면 해당 과목을 수강할

확률이 높아져 과열 경쟁을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를 줄 수 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매크로 사용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학생들이 학교 측의 대응에 대해 가장 어렵게 여긴 부분은 진정한 사과와 책임감 있는 태도의 부재였다. 서버 과부하나 기술적 한계의 경우 불가피한 문제지만 학교 측에서의 책임 인정과 공식적인 사과가 부족하단 것이 이해하기 어렵단 의견이 주를 이뤘다. 학교 측에 대해 강 씨는 “몇 년간 반복된 사태란 이유와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렵단 이유로 사과를 회피하는 것은 책임 회피다”고 비판했다.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선 매크로 사용자 징계 뿐만 아니라 △피해 학생 구제 △시스팀 구조 개선 △학교 측의 공개적 책임 인정 등이 포함된 종합적인 대책이 필수적이다. 총학은 “향후에도 협의 과정을 학우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다”고 전했다. 우리학교가 책임감 있는 태도를 바탕으로 모두의 학습권이 보장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채연 기자 11chaeyeon@hufs.ac.kr

후속보도

우리학교 국제학사 휴게실, ‘쓰이는 공간’이 되기 위해선

지난 1090호 준기획 기사에선 우리학교 서울캠퍼스(이하 설캠) 국제학사(이하 국학) 휴게실 관리 현황과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방안에 대해 다뤘다.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이하 설캠 총학)는 우리학교 학생을 위해 단순한 ‘침터’를 넘어 심리적 안정을 제공하고 학업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공간으로 만들고자 노

력하고 있다. 그러나 국학 휴게실은 △공간 협소 △낮은 인지도 △제한된 편의 시설 등 여전히 여러 과제와 맞닥뜨려 있다. △국제학사 휴게실 현황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설캠 국제학사 휴게실 현황

현재 국학 휴게실은 2층과 3층에 각각 여자 휴게실 및 수면실과 남자 휴게실이 자리 잡고 있으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되고 있다. 국학 휴게실은 설캠 총학의 관리하에 운영되며 정기적인 청소와 세탁을 통해 기본적인 유지, 보수가 이루어지고 있다. 공용으로 제공되는 담요와 슬리퍼 등의 비품도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학들의 편의 보장에 힘쓰고 있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 시설이 제대로 이용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없기에 학생들이 이용 수칙을 지키지 않거나 시설 청결 유지가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설캠 재학생 A 씨는 “심한 냄새가 날 때가 있다”며 “개인 물품을 그대로 두고 가는 경우 또한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취재 결과 남자 휴게실은 슬리퍼나 담요가 제자리에 있지 않고 널브러져 있는 등 상대적으로 뒷정리가 잘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휴게실 이용 편의성 향상과 활성화를 위해선 시설 개선이 시급하나 예산과 공간이라는 현실적인 제약에 직면해 있다. 설캠 총학은 학생들에게 더 나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리모델링(Remodeling)과 편의 시설 확충 등 여러 개선안을 검토했지만 예산 한계로 즉각적인 실행은 어렵단 입장이다. 휴게실 내부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 추가로 학생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을 비치

하는 계획도 현재로서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취재 결과 남자 휴게실은 여자 휴게실과 달리 휴게 공간과 수면 공간이 분리되지 않은 단일 공간으로 운영돼 더욱 협소했으며 휴식용 가구도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낮은 인지도와 홍보도 휴게실 이용률 저조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미네르바 콤플렉스 지하 1층 라운지(Lounge)나 중앙도서관 2층 휴플레이스(休-Place)와 달리 국학 휴게실은 학생들 사이에서 인지도가 현저히 낮은 편이다. 올해 상반기 총학이 휴게실 이용 내규를 공지했으나 이후 적극적인 홍보 활동은 부족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일부 학생들은 휴게실의 위치와 이용 방법조차 알지 못해 학생들을 위한 편의 시설이 잘 활용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설캠 통학생 B 씨는 “공강 시간에 효율적으로 휴식 시간을 활용하고 싶는데 국학 휴게실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것 같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설캠 총학 관계자는 2학기엔 다시 기회를 마련해 학생들이 휴게실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아가야 할 방향

국학 휴게실은 현재 미흡한 관리 체계와 낮은 실제 이용률로 인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국학 휴게실을 단순한 ‘존재하는 공간’에서 ‘실제로 활용되는 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해선 △제도 개선 △재정 지원 △홍보 등의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서 휴게실 환경 개선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봉사장학생’을 두는 관리 체계를 도입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휴게실을 운영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 학생 휴게실 봉사장학생 제도를 운용해 시설 관리와 이용 편의를 동시에 강화하고 있다. 이 외에도 QR코드 기반 민원 접수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식도 고려해 볼 수 있다. 해당 방식은 학생들이 휴게실 개선 의견이나 시설 불편 사항을 실시간으로 전달할 수 있어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데에도 도움을 준다.

학교 차원의 재정적 지원도 필수적이다. 예산 지원을 통해 △빈백(Bean bag) △소형 테이블 △의자 등 추가 편의 가구를 비치하고 공간 배치와 인테리어(Interior)를 개선해 학생들이 자주 찾는 휴게 공간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휴게실 이용 시간 연장을 통해 자연스럽게 학생들의 이용을 유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설캠 재학생 C 씨는 “시험 기간 등 이용하는 사람이 많을 시엔 제1자료실처럼 24시간 개방으로 휴게실 이용 시간을 늘려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홍보와 인식 개선도 필수적이다. 휴게실의 존재를 잘 모르는 학생이 많다는 사실은 시설이 ‘무용

지물’로 전락할 위험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와 총학은 적극적인 홍보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 총학 공식 인스타그램(Instagram)을 활용한 △운영 안내 △위치 안내 △이용 내규 공지 △이벤트 홍보 등을 통해 학생들이 휴게실을 자연스럽게 방문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또한 휴게실 관리 및 운영 지침을 학교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이용 규칙을 명확히 하고 학생들의 자발적 준수를 유도할 수 있다.

학생 B 씨는 “휴게실이 개선돼 제 역할을 수행한다면 학교생활 전반에 활력소 역할을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처럼 휴게 공간은 우리학교 학생들이 안정을 취하며 학우들과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복지 공간이다. 총체적 대책을 통해 국학 휴게실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신뢰받는 휴게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길 기대한다.

이채연 기자 11chaeyeon@hufs.ac.kr

기숙사 공유 공간, 과연 ‘함께’ 쓰는 공간 맞나?

우리학교 글로벌캠퍼스(이하 글캠) 기숙사 흡스돔(HUFS Dorm)은 다양한 국적과 학과 학생들이 함께 생활하는 소중한 보금자리다. 또한 △비교적 저렴한 비용△통학의 편리성△편리한 생활 환경 덕분에 많은 학생들이 선호한다. 그러나 실제 생활 속에선 △라운지(Lounge)△세탁실△열람실△휴게실 공간 등 기숙사 내 공유 시설 관리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며 학생들의 생활 만족도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기숙사는 단순한 거주 공간을 넘어 고향을 떠난 학생들의 인식차란 점에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관리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기숙사 공유 공간 이용 현황 및 문제점△이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준히 제기되며 학생들의 생활 만족도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기숙사는 단순한 거주 공간을 넘어 고향을 떠난 학생들의 인식차란 점에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관리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기숙사 공유 공간 이용 현황 및 문제점△이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기숙사 공유 공간 이용 현황 및 문제점

흡스돔엔 기숙사생들의 편의를 위해 △라운지△세탁실△열람실△휴게실 등 다양한 공유 공간이 마련돼 있다. 저녁 시간이나 시험 기간이 되면 해당 공간들은 △과제△빨래△식사△휴식 등을 취하는 학생들로 붐빈다. 이처럼 공유 공간은 기숙사 생활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자리 잡았지만 관리 상태는 학생들의 높은 이용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우선 휴게실의 청결 문제가 심각하다. 저녁 8시가 넘는 시각이면 휴게실 옆 분리수거장은 학생들이 먹고 남긴 배달 음식 용기와 각종 쓰레기로 가득 차 있다. 탁자 위엔 음료를 쏟은 자국이나 음식물이 그대로 남아있고 쓰레기통은 넘치는 상황이다. 현재 기숙사엔 다양한 생활 안내문이 공지돼 있지만 관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재하다. 때문에 기숙사 내 라운지에서 배달 음식 용기를 씻는 등 분리수거 지침이 지켜지지 않거나 그대로 바닥에 방치되는 것이 일상이다. 이는 기숙사 휴게실의 △미감 훼손△벌레△악취 발생으로도 이어진다. 이에 대해 이준원(국가전략·세르비아크로아티아 23) 씨는 “저녁 일과 후 조별 과제를 하러 해도 휴게실 테이블이 끈적이거나 휴게실의 분리수거장에서 나는 냄새 때문에 자리를 사용하기에 망설여질 때가 많다”며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인 만큼 다 같이 깨끗하게 사용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 아쉽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세탁실의 시설 부족과 관리 부실 문제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A동은 건조기 8대가 설치돼 있어 84명당 1대를 사용하는 반면 C동은 652명이 거주함에도 건조기 4대만 설치돼 있어 163명당 1대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세탁실에 갖춰진 세탁기 앞 ‘고장’이라는 안내문을 빈번하게 볼 수 있었으며 세탁이 끝난 빨래가 방치되거나 다른 기숙사생의 세탁물과 섞이는 등으로 인해 많은 학생이 불편을 겪고 있다. 이렇듯 전체 거주 인원 대비 세탁 시설이 턱없이 부족할 뿐 아니라 비치된 기계들의 노후화와 관리 미흡으로 학생들의 불만이 높은 상황이다. 아울러 비용을 지불했음에도 세탁기가 중간에 작동을 멈추거나 건조기가 제 기능을 못 해 빨래가 제대로 마르지 않는 일이 잦다. 또한 세탁실 내부의 세제 찌꺼기나 건조기 필터 먼지가 제대로 청소되지 않아 비위생적이란 지적 역시 존재한다. 최나영(C&T·투월 24) 씨는 “부족한 수의 세탁기를 기다려 사용하는데 돈만 받고 전원이 꺼져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건조기도 제 성능을 못 할 때가 많다”고 토로한다. 또한 “고장 신고를 해도 ‘졌다 켜보라’라는 답변만 돌아오거나 전화를 받지 않는 경

우가 많아 답답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열람실과 휴게실의 사석화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일부 학생들이 개인 물품을 두고 장시간 자리를 비워 다른 학생들이 해당 공간을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좌석이 부족한 라운지에선 사석화로 인해 이용을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휴게실 역시 사석화로 인해 해당 층의 기숙사생이 자신이 거주하는 층에서 식사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

공유 공간 점검의 부재 역시 이러한 문제를 심화시키는 요인이다. 현재 글캠 기숙사엔 사생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총사생회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활동하고 있지만 공유 공간의 청결 및 이용

문제가 심각하다. 아울러 심각한 위생 문제 해결을 위해선 각 공유 공간 특성에 맞는 세분된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휴게실엔 사진을 활용한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법을 부착하고 세탁실엔 ‘세탁 완료 후 10분 내 수거’와 같은 구체적인 규칙을 명시하는 것이다. 주기적으로 공유 공간을 순찰해 규칙 위반 사례에 경고 스티커를 부착하고 상습 위반자에겐 벌점을 부과하는 등 실질적인 제재를 또한 이뤄져야 한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선 학생 자치 기구의 적극적인 역할 또한 요구된다. 현재 활동 중인 총사생회가 사생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과 함께

와 관련해 성균관대학교 수원캠퍼스(이하 성대 수원캠) 봉통학사 기숙사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 성대 수원캠의 경우 모든 세탁기를 기숙사에서 직접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다. 또한 미화팀에서 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세탁조 청소를 하고 오염물이 심한 세탁기는 전문 업체에 의뢰해 세척을 실행해 세탁 시설 고장 시에도 신속히 수리를 진행한다. 이들은 또한 학생 의견을 수렴하고 이용 만족도를 상시 확인한다. 우리학교 기숙사 역시 △자가 청소 도구 비치 및 사용 교육△정기적인 세탁조 전문 청소△학생 의견 수렴형 시범 운영등의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시설 관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QR 코드 기반의 온라인 예약 시스템을 △건조기△세탁기△열람실에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시설 사용 현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으며 특정 시간대 쏠림 현상을 막고 대기 시간도 줄일 수 있다. 더불어 시설 고장이나 청결 문제를 발견했을 경우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이하 앱)을 통해 즉시 신고하고 처리 현황까지 확인할 수 있는 원스톱(One-Stop) 민원 처리 시스템을 구축해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이와 관련해 고려대학교 안암학사는 전용 모바일(Mobile) 앱인 ‘아이스캠(ISKAM)’을 통해 스터디룸과 세미나실 등 공용 시설 예약을 받고 있으며 시설 고장 신고 또한 앱으로 처리해 신속한 피드백을 제공하고 있다.

흡스돔의 공유 공간은 단순히 잠깐 머무는 공간을 넘어 학생들이 서로 교류하며 성장하는 학습과 생활의 장이다. 적극적인 문제 개선과 학생들의 노력이 더해져 모두가 만족하는 쾌적하고 편리한 공유 공간으로 거듭나기를 희망한다.



▲출처: 우리학교 기숙사 홈페이지

수칙 위반 문제를 실질적으로 감독하고 개선하는 제도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공유 공간 순찰과 같은 기본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기숙사생들은 기숙사 홈페이지의 △민원 게시판△이메일(E-Mail)△전화를 이용하거나 운영팀에 직접 방문해야만 의견을 전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방적인 소통 방식으로는 기숙사생들의 불편 사항을 체계적으로 해결하거나 운영팀과 기숙사생 간 원활한 소통을 이끌어내기 어렵다.

◆나아가야 할 방향

앞서 살펴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선 먼저 명확한 이용 수칙 확립과 체계적인 청소 관리 체계 마

공유 공간 관리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안내하는 이미지를 제작해 부착하거나 주기적으로 공유 공간 순찰 및 점검 활동을 주도하는 방안이 있다. 이러한 학생 주도적 노력은 운영팀의 업무 부담을 줄여 문제에 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나아가 사생들의 자발적인 관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세탁실 시설 확충 및 이용 태도 형태 개선 또한 필요하다. 글캠 기숙사의 심각한 세탁실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건조기 추가 설치를 우선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특히 C동의 경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 불편함이 적지 않은 만큼 즉각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입사 오리엔테이션(Orientation)에서 세탁실 이용 수칙을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반복적인 규칙 위반 시 벌점을 부과하는 등의 실질적인 제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



헝가리

<장미 박람회>

-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정원 -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을 반영하는 다큐멘터리(Documentary). 헝가리(Hungary)의 한 신인 프로듀서(Producer) 아론(Aron)의 패기에서 시작된 이 기획은 '장미 박람회'라는 다소 엉뚱한 제목으로 시작한다. 이 책의 제목이자 책 내 다큐멘터리 제목인 '장미 박람회'는 외르케니 이슈트반(István Örkény)이 시도한 독특한 작품이다. 어떤 △녹음본△삽입곡△연출 등이 쓰였는지 상세히 서술돼 있어 마치 실제 감독의 촬영 기록을 읽고 있는 듯하다. 또한 다큐멘터리에 이 제목을 붙인 데엔 흥미로운 배경이 있다. 아론은 더 이상 치료할 수 없는 환자의 가장 극적인 순간을 촬영해 대중에게 공개하고 싶다는 결심으로 방송국에 제안서를 보냈다. 그러나 방송국의 강한 거부로 합의 끝에 어두운 제목인 '우리는 죽는다' 대신 화사한 '장미 박람회'라는 다소 이질적인 명칭으로 촬영을 시작한 것이다.

출연자는 △더르버시(Darvas) 교수△미코(Mikó) 부인△제이 너지(J. Nagy) 총 세 명의 불치병 환자이다. 첫 번째 출연자는 허가 지연으로 이미 세상을 떠나 아내의 인터뷰를 토대로 방영했다. 무뚝뚝하고 연구에만 몰두했던 언어학자 더르버시는 온몸이 마비된 상태에서도 연구의 마지막 장을 쓰기 위해 아내의 손을 빌리고 그녀를 애칭으로 불렀다. 그래서 남편의 마지막 열흘이 역설적으로 그녀에게 결혼 17년간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으며 아내였음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두 번째 출연자는 정원사 미코 부인이다. 임종을 앞두고 있지만 본인보다 어머니를 더 걱정해 다큐멘터리 출연료로 어머니의 생계에 보탬이 되고자 출연했다. 세 번째 출연자는 자신의 최후를 예술적 프로젝트(Project)로 받아들이는 작가 제이 너지다. 그는 자신의 마지막 순간을 하나의 예술적 창작으로 완결하려는 집착 끝에 심장 발작으로 쓰러진다.

이 책은 인간이 죽음을 배척하고 외면하는 시선을 뒤집는 그로테스크(Grotesque)적 장치가 주요한 역할을 한다. 잔잔하게 부조리를 드러내는 아이러니(Irony)는 죽음을 원초적이고 근본적인 것으로 드러내며 존재론적 철학에 대한 통찰을 제공한다. 나는 예술의 연장선에 놓인 그 개념을 집약한 이 글의 주제 의식에 단순히 매료됐다. 그리고 이러한 통찰에 대해 생각해 볼 겨를 없이 바쁘게 치어 왔던 삶에서 죽음을 정면으로 바라볼 수 있었다. 특히나 이 책은 내가 청소년과 어른의 경계선 상태에서 만난 책이라 더욱 뜻깊은 책이다. 인생에서 더 많은 것을 생각할 시기에 '죽음'에 관해서 사유할 수 있는 심오한 경험을 선사했기 때문이다. 이렇듯 장미 박람회는 소설로 풀어내는 인간의 최후에 대한 초월적인 묘사와 작가 특유의 죽음을 향한 시선을 담은 작품이다. 이 책을 통해 인간 개개인의 마지막을 기록하는 실리적 시도를 읽는 것을 넘어 '현대 사회가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스스로 마주해 보면 어떨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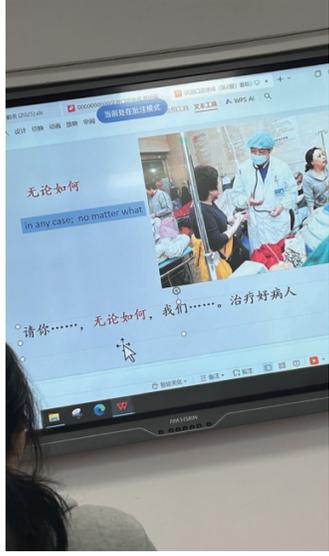
송주원 기자 11juwon@hufs.ac.kr

중국 교환학생, 두려움에서 성장으로

나는 스스로 중국어 실력이 부족하다고 느낀 공했다. 전공어임에도 능숙하지 못한 스스로가 부끄러웠고 이를 극복하는 동시에 내가 배운 중국과 실제 중국의 차이를 알고자 우리학교 교환 학생 프로그램을 신청했다. 나는 중국 산둥대학교(山东大学 이하 산둥대)로 가게 됐다. 막상 교환 신청을 하니 실력과 두려움이 공존했다. 나 혼자 어디론가 떠나는 것은 인생에 있어 처음이었고 아무 정보도 없는 곳여서 너무 걱정됐다. 이런 마음은 교환을 철저히 고민하게 만들기도 했

학교에 대해 기억에 남는 점은 캠퍼스가 우리학교에 비해 컸다는 점이다. 때문에 처음엔 수업을 듣는 공간이나 식당 등을 찾기 어려웠다. 학교 근처를 둘러보고 확인하는 시간을 거친 뒤 어느 정도 익숙해질 수 있었는데 나는 특히나 길치였기에 처음 등굣길을 찾는데 너무 힘들었다. 또한 학생식당의 경우 우리학교와 달리 3~4개 정도 있어 다양하고 많은 음식들을 먹어 볼 수 있었다. 중국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에겐 다양한 음식을 도전해 볼 수 있는 흥미로울 수 있으나 고수와

다양한 곳을 다녀오기 위해 노력했는데 스내몽골△대련(大連)△상해(上海)△연태(烟台)△칭다오(青島) 총 5곳을 방문했다. 이때의 기억은 아직까지도 좋은 기억으로 남는다. 특히 내몽골의 경우 가장 체력적으로 지치는 곳인 동시에△사막△야생 새벽 공기△초원이 좋아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는다. 중국은 워낙 큰 대륙이라 지역별로 이미지나 분위기가 정말 달라 다양한 곳을 방문하며 견문을 넓힐 수 있어 좋았다.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간혹 성희롱 발언이나 태도를



지만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썰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결국 중국에 갔다.

산둥대의 기숙사는 선착순으로 열쇠를 쫓았는데 나는 혼자 중국에 갔기 때문에 남는 방으로 가게 됐다. 3층 방을 배정받았는데 미리 블로그(Blog)를 찾아본 결과 2층이 가장 좋다는 평을 많이 봐 걱정됐다. 하지만 막상 지나 보니 우리 방은 수리를 요청하는 일도 거의 없었고 오히려 좋은 컨디션의 방이었던 것 같다. 휴대전화 번호나 카드 발급의 경우 산둥대의 한 학생이 도와줬다. 대부분의 일을 그 친구가 처리해 줬는데 하나 불편했던 점은 휴대전화 번호를 만들 때 사람이 너무 몰려 시간이 오래 걸렸고 비용 지불에 관련해서 명확하지 않아 답답했다. 나는 중국 이동통신(China Mobile)을 사용했는데 해당 회사보다 다른 통신사를 방문하는 것을 추천한다.



마라 등 향이 강하고 간이 센 음식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에겐 스트레스(Stress)가 될 수 있었다. 나는 후자의 경우여서 오히려 살이 빠졌다.

학교 생활 외에 중국 여행 또한 다양하게 다녔다. 내가 지냈던 곳은 산둥 웨이하이(威海)였는데 여긴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거칠지 않고 여유로운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다. 다만 편의시설이 부족해 내 취미인 △맛집△쇼핑(Shopping)△카페(Cafe) 방문 등을 할 수 없던 점이 아쉬웠다. 그렇기에 여행을 더욱

겪었던 몇 지역이 있어 혼자 다니는 것보단 친구들과 같이 다니는 것을 추천한다.

귀국 후엔 바로 중국어 자격증 시험을 봤다. 고득점 취득으로 교환 학생의 목적을 달성해 기뻐했으나 공부하며 느꼈던 중요한 점은 학교 수업만론 언어 성장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학교에서 배우는 것 외에 단어 암기나 중국어 듣기와 같은 노력을 많이 해야 했다. 특히 중국은 술이 짙은 편이기에 자칫 노는 시간이 많아질 수 있어 스스로가 관리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술을 마시며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도 좋지만 교환학생의 목적이 언어 실력 향상이라면 공부 시간도 충분히 확보했으면 좋겠다 충고를 하며 마무리하고자 한다.

정보민 (중국 · 중언문23)

국제지역 전문가 양성의 요람 국제지역대학원 2026학년도 전기 모집

1. 국제지역대학원 모집

◎ 석사학위과정 / 박사학위과정 / 석·박사 통합학위과정 모집 전형 일정

Table with columns: 구분, 1차 모집, 2차 모집. Rows include 원서작성, 면접 전형일, 입학설명회.

* 온라인 접수사이트 : http://www.uwayapply.com
※ 온라인 입학설명회 세부 안내는 추후 국제지역대학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예정(단,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특징

- 가. 다양한 장학금 제도
나. 유엔평화대학 이종학의 프로그램 운영(국제학과, 한국학과, 중남미학과, 유럽연합학과)
다. 3+1제도 시행(선발자에 한하여 재학 중 1학기는 해외에서 학점 취득)
라. 폭넓은 다양한 지역학, 국제학 과목 개설
마. 졸업 후 많은 동문들이 국제기구, 공공기관 국제협력실, 대사관, 국제 연구기관 등에서 국제지역 전문가로 활약 중

문의처: 02)2173-2448, 2449, 2434 / Email: hufsgsias@hufs.ac.kr
- 국제지역대학원 홈페이지: https://gsias.hufs.ac.kr

2. KOTRA-HUFS 통상 협동 특별과정 모집

◎ 모집: 석사학위과정(4학기)

Table with columns: 학과(전공), 학위. Rows include 국제지역전략학과, 통상 협동 특별과정, 국제지역학석사, 경제학석사

◎ 모집일정

Table with columns: 구분, 1차 모집, 2차 모집. Rows include 원서작성, 면접 전형일, 입학설명회.

* 온라인 접수사이트 : http://www.uwayapply.com

◎ 특징

- 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출신 교수진 초빙
나. KOTRA의 통상전략 및 지역통상 현안 분석을 기반으로 국제지역대학원의 고유가치인 지역학 집중
다. 통상환경 + 실무이론 + 지역별 심화 연구를 아우르는 실무 통상 전략기 양성을 목표로(커리큘럼 방향은 추후 변경 가능)
라. 졸업 시 학위기와 함께, 별도로 KOTRA 사장 명의의 KOTRA-HUFS 통상 협동 특별과정 수료증 수여
마. KOTRA 현지 무역관 연계 단기 현장학습 추진
바. GBC(글로벌 비즈니스 컨설턴트, 민간 1급) 자격증 연계

문의처: 02)2173-2448, 2449, 2434
Email: hufsgsias@hufs.ac.kr
- 국제지역대학원 홈페이지: https://gsias.hufs.ac.kr



한국외국어대학교 2026학년도 통번역대학원 석사과정 신입생 모집

◆ 전형일정

Table with columns: 구분, 석사과정, 비고. Rows include 지원신청, 서류제출, 1차 시험, 1차 합격자 발표, 2차 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

◆ 모집학과

Table with columns: 과정, 학과(전공), 비고. Rows include 2개언어과정, 3개언어과정.

◆ 지원자격

-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26년 2월(단, 일본 대학교는 3월) 취득 예정인 자
■ 독학사는 학위취득자에 한함
○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전형방법: 필기시험 및 구술평가

- ◆ 제출 서류 등 세부사항 : gsit.hufs.ac.kr 홈페이지 모집요강 참조
우편제출 02450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사무 1팀 통번역대학원 교학과(국제관 2층 208호) 입학담당자 앞
입사문의 02)2173-2433, 2435~6



같은 이름의 두 집 살림, 이원화캠퍼스 전환 정책의 현황

◆분캠에서 이원화가 된 학교들

1970~80년 박정희 정부의 수도권연구부산정정책과 대학의 정원 확대 요구가 맞아 떨어지면서 서울 주요 대학은 경쟁적으로 분교를 수립했다. 그러나 2011년 6월, 이전까지 금지된 사립대학의 본·분교 통합을 허용하는 '대학설립·운영 규정' 개정안이 입법된 후, 분교들의 인식 개선 및 본교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희대학교(이하 경희대)△단국대학교(이하 단국대)△중앙대학교(이하 중앙대)△성균관대학교(이하 성균관대)△홍익대학교(이하 홍익대) 등 여러 대학들은 다시 '이원화캠퍼스'란 이름으로 분교를 본교로 품었다.

일련의 과정을 거쳐 본교와 분교가 행정적으로는 '하나의 학교'가 됐지만, 일부 대학을 제외하면 아직 '서로 다른 학교'란 인식은 여전하다. 중앙대의 이원화캠퍼스인 다빈치캠퍼스(이하 다빈치캠)에 대한 인식을 커뮤니티 '대학백과'에 검색해봤다. 지난해 9월 22일, 중앙대를 지원하고자 하는 했던 한 학생은 "안성캠(다빈치캠)의 인식은 어떤가요?"란 글을 올렸다. 이에 한 중앙대 24학년 재학생은 "명목상 이원화, 사실상 분교다"란 답변을 남겼다. 타 학생들의 답변에도 같은 대학이란 인식은 찾아볼 수 없었다. 실제로 지난해 중앙대 설캠을 졸업한 박재현 씨는 "같은 학교라고 생각하는 비중이 적은 것이 사실이다"고 밝혔다. 중앙대 다빈치캠에 재학 중인 A 씨의 경우 "다빈치캠 학생으로서 서울캠퍼스를 같은 학교로 생각하고 있다"며 "하지만 학교 행사도 따로 하다 보니 사실상 분교 같은 느낌이다"고 밝혔다.

홍익대의 경우 분교였던 세종캠퍼스(이하 세종캠)를 이원화캠퍼스로 전환했다. 하지만 학내 인식은 마찬가지로 '완전히 다른 학교'였다. 홍익대 세종캠 대학백과 페이지에 '인식'을 검색해본 결과 "설캠과 비슷한 취급을 원하는 건 안좋다", "행정상 이원화는 맞으나 대우가 같은지는 모르겠다" 등의 답변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제로 홍익대 설캠에 위치한 사범대학에 재학 중인 B 씨는 "다른 학교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직 제자리를 찾지 못한 이원화 정책

위와 같은 학생들의 인식 형성의 배경엔 완벽한 기능적 이원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던 점이 지적된다. 즉, 학문적으로 유사한 영역에 있는 학과들이 양 캠퍼스(이하 양캠) 모두 존재되어 분교에서 이원화가 된 캠퍼스가 '분교'인식을 지우고 있지 못하고 있던 것이다. 실제로 중앙대 다빈치캠의 경우 전반적으로 예체능 학과를 중심으로 구성되었지만 공과대학의 일부 학과가 양캠에 나뉘어 존재하는 등 완벽히 기능이 양분되었진 않았다. 홍익대 또한 양캠 모두에 공학 계열, 상경 계열, 미술 계열 학과가 존재했었다. 성공 사례로 평가받는 경희대의 경우도 서울캠퍼스에는 순수 학문 위주의 학과를 국제캠퍼스에는 응용 관련 학과를 설치하겠다는 방침이었으나 현실은 이와 다소 다른 모습이다. 실제로 경희대 입학처 홈페이지에 게시된 학과소개에 따르면 빅데이터응용학과나 미래정보디스플레이학과와 같이 학과 명칭에서부터 응용 학문으로 분류되는 학과들조차 서울캠퍼스에 위치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이에 대해 경희대 관계자는 "주로 그러한 기준으로 캠퍼스별 학과 설치가 이뤄져 갔긴 하다"며 "그러나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며 현재에도 완벽히 해당 기준에 따라 분류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양캠 간의 접점이 부족하던 점 또한 문제로 지적된다. 유대감의 부족으로 인해 '하나의 캠퍼스'라는 인식이 자리잡기 어렵단 것이다. 위의 홍익대 재학생 C 씨는 "세

종의 재발견'이라는 강의를 제외하면 세종캠과 함께 하는 강의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와 같이 양캠 학생들이 함께 활동할 수 있는 기회의 제한은 결국 '하나의 학교'로서의 소속감과 유대감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 C 씨는 "입학 후 함께 듣는 강의도 없고 그에 따라 자연스럽게 해당 캠퍼스에 방문할 기회가 적어지는 등 공유하고 있는 요소가 거의 없다"며 "서로가 같은 학교라는 인식을 갖진 않는다"고 밝혔다. 위의 중앙대 재학생 B 씨 역시 "양 캠퍼스 간 별도의 교류 행사도 없을 뿐더러 공동으로 주최하는 행사도 없다 보니 사실상 분교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밝혔다.

◆우리학교의 이원화의 현주소

우리학교의 이원화는 어떨까. 2013년 박철 당시 우리학교 총장은 우리학교의 대외적인 이미지 개선△대형 대학 인정에 따른 정부 지원금 확보△'외대인'으로서의 인식 통합 계기 마련 등을 근거로 분교였던 글캠을 본교로 통합했다. 학교 행정직원인 D 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본·분교통합이 대세였던 시기에서 우리만 중소형대학 두 개로 남을 수 없다"는 논의가 있었다며 "일부 학과 명 변경 조치 및 통폐합의 대상이 되는 학과를 제외하곤 본·분교 통합에 찬성하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현재 이원화 체제는 11주년을 맞았지만 아직 관련 정책의 이행이 잘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평가가 대다수였다. 외대학보가 우리학교 재학생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이하 에타)에서 진행한 설문 결과 응답자 중 94.7%는 "이원화캠퍼스 정책이 잘 이행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답했다. 설캠 아시아언어문화대학 소속 E 씨는 글캠을 같은 학교로 느끼는 질문에 "솔직히 다른 학교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특정 캠퍼스에 소속됐다'는 이유로 학내에서 '차별'을 받았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라고 답변한 응답자도 51.2%에 달했다. 가장 많이 언급된 사례는 에타 내 혐오 표현이었다. 한 학생은 "에타 내에 올라오는 에타에 올라오는 여러 혐오 글들을 보면서 위축된다"고 밝혔다. 이러한 사례는 현실에서도 있었다. "학회나 동아리 면접 시 좋지 않게 바라보는 듯한 말투를 느꼈다"고 답한 학생도 있었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한 학생은 "일부 교수진들이 글캠 학생들을 동등하게 대우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차별 경험을 밝혔다. 이러한 경험을 겪은 것에 대해 글캠에 재학 중인 F 씨는 "모든 곳에서 글캠이란 수식어는 남들에게 밝히긴 부끄러운 단어가 됐다"고 언급했다.

이와 같이 '완전한 이원화'는 아직 요원하다. 가장 큰 문제는 학내외의 인식이었다. 위의 설문조사에서 가장 많은 응답자인 58.5%는 이원화가 안되는 요인 중 하나로 '서로 다른 학교'라고 바라보는 학내외의 인식을 꼽았다. 학외의 인식 또한 '완전히 같은 학교'와는 거리가 멀었다. 실제로 취직 사이트 캐치(Catch)에서 우리학교를 검색할 경우 '한국외국어대학교(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글로벌)'로 두 개의 선택지가 표시된다. 반면 경희대와 성균관대의 경우 일원화된 표기로 존재하고 있



▲서울캠퍼스 전경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 설문조사 응답자는 "학원 알바 면접 때 글캠이란 이유로 차별을 받은 바 있다"고 답한 바 있다.

◆우리학교 이원화의 문제

이러한 인식의 원인으로 우선 캠퍼스 특성의 모호함이 지적됐다. 위의 설문조사에서 '잘 이행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들은 "각 캠퍼스별 테마가 모호하다", "설캠의 △경영△경제△국통과 글캠의 △국제금융△GBT 등 서로 유사한 학과가 존재한다" 등으로 답변했다. 실제로 이원화캠퍼스 정책의 성공 사례인 성균관대의 경우 서울 소재 캠퍼스는 '인문사회학'을 특성으로, 수원 소재 캠퍼스는 '자연과학·공학'을 특성으로 캠퍼스를 분배 및 발전시켰다. 그러나 우리학교의 양캠은 그와 같은 학문적 특성이 뚜렷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구체적으로 양캠 모두에 인문사회학을 다루는 학과가 운영되고 있다. 또한 글캠에만 있었던 자연과학 및 공학 관련 학과가 양캠의 특성을 그나마 보여주던 요소였지만 AI 융합대학 소속 Language&AI 융합학부(이하 LAD)와 Social Science&AI 융합학부(이하 SAI)가 설캠에 설치되면서 그마저도 사라졌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글캠에 재학 중인 G 씨는 "성균관대처럼 확실히 캠퍼스별 특성을 나눠줬으면 한다"며 "그러나 자주 유사한 학과가 양캠에 동시에 생기니 글캠에 대한 인식이 날이 갈수록 나빠지는 것 아니겠나"고 말했다. 설문조사에서 한 응답자 또한 "이런 문제 때문에 같은 대학의 두 캠퍼스가 아닌 별개의 두 종합대학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기획조정처(이하 기조처)의 입장은 달랐다. 우선 기조처는 위의 주장에 대해 "자연과학 계통의 학과는 설캠엔 일체 없어야 한다거나 글캠엔 어문학 계통의 학과가 일체 없어야 한다는 주장들은 굉장히 융통성이 없는 방안이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이어 "현재 글캠에 남아있는 국가전략언어대학과 경상대학에 속한 학과들은 '실용 융합 학문 중심'이란 글캠의 캠퍼스 특성과 어긋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AI 융합대학의 캠퍼스 배치에 대해서도 '공학과'를 설캠에 배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AI 융합대학은 공학과의 성격보단 기존 학문에 인공지능을 융합하는 성격이 더 크다"며 "그렇기에 언어와 사회과학을 주 융합 대상으로 하는 LAI와 SAI의 경우 설캠에 설치됐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상황에 대해서 "학생들이 그와 같이 느끼는

것엔 여전히 통폐합의 대상이 되는 언어학과 학생들이 많이 남아있어 그런 것으로 생각한다"며 "본·분교 통합 당시에 비해 중북학과 통폐합 등 조치로 많이 개선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그러한 방향으로의 학제 개편도 논의가 안 이뤄졌던 것은 아니다"며 "그러나 글캠 내 경상 학문에 대한 수요와 캠퍼스 정원 문제를 고려했을 때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높은 방안도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글캠 학생들은 투자 부족에 대한 불만도 제기했다. 특히 글캠 내 △공학관△도서관△자연과학관의 리모델링 지연 등을 설캠 도서관 재건축과 비교하며 글캠에 대한 투자가 없지 않느냐는 학생들의 지적이 많았다. 실제로 위의 설문조사에서 이원화가 잘 이행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시설 및 투자 수준의 격차'를 선택한 응답자의 비율은 23.8%에 달했다. 한 응답자는 서울캠 답변으로 "너무 낙후되고 등한시되는 글로벌캠퍼스에 대한 투자가 위와 같은 인식을 만드는 것 같다"고 밝혔다.

신설 학과에 대한 투자 문제도 지적됐다. 위의 G 씨는 "학교가 도대체 글캠에 무엇을 투자했는지 궁금하다"며 "불안정한 신설 학과가 계속 생겨나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투자와 지원이 너무 부족하다"고 밝혔다. 안정된 학과가 다수 포진돼있는 설캠과 달리 글캠의 경우 불안정한 신설학과가 대다수고 이것이 글캠의 전반적인 이미지 하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단 것이다. 실제로 최근 10년간 설캠의 신설학과는 △LD학부△LT학부△SAI△LAI 뿐이었으나 글캠의 경우 △융합인재학부△기후변화융합학부△투어리즘웰니스학부△AI데이터 융합학부△Financial&AI학부 등 다수의 신설학과가 존재했다. 지난 1009호에서 외대학보 취재 당시에도 이러한 신설 학부들의 불안정한 체제 및 부족한 지원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었다.

이에 대해 기조처는 다소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기조처는 "글캠의 낙후된 시설로 인해 학생들이 느끼는 생각들은 이해한다"며 "그러나 예산 편성 차원에서 설캠과 글캠에 균형 있게 투자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시설 문제와 관련해 "학교 재정 상황의 문제로 설캠과 글캠 가릴 것 없이 최근 대규모 증축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부연했다. 이어 "설캠과 글캠이란 이유만으로 투자를 차별적으로 진행하거나 하는 등은 절대 이뤄질 수 없다"며 "우리는 설캠 학생과 글캠 학생 모두 같은 우리학교 학생으로 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우리학교는 캠퍼스 간 교차수강을 제한하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도 글캠 일부 학생들에게서 불만의

지난 4월과 5월 우리학교 서울캠퍼스(이하 설캠) 총학생회(이하 총학) 중앙운영위원회는 과거 글로벌캠퍼스(이하 글캠) 소속 유사 중북학과 통폐합(이하 통폐합)에 따른 교원 및 학생의 설캠 수용에 관해 학교와 논의한 바 있다. 지난 2022년부터 추진된 일련의 통폐합 추진의 목적은 분교였던 글캠이 실질적인 '이원화캠퍼스'가 되도록 하겠다 목표의식에서 출발했다. 하지만 우리학교가 실

질적인 이원화캠퍼스인지에 대한 학내외의 인식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그렇다면 분교를 이원화캠퍼스로 품은 타 대학의 상황은 어떨까.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본캠에서 이원화가 된 학교들의 현황과 우리학교의 이원화 문제에 대해 알아보자.



▲글로벌캠퍼스 전경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이에 대해 설문 조사에 참여한 H 씨는 “대학 영어 등의 수업이 교차수강이 안되는 것부터 분교 취급 아니냐”고 밝혔다. 양캠의 학생들은 자신이 이중전공 혹은 부전공하고 있는 학과의 수업이 아닌 이상 다른 캠퍼스의 수업을 수강하지 못한다. 전공하고 있는 학과더라도 우리학교 국가리더전공을 비롯해 양캠 모두에서 수업이 개설되는 전공 학과가 있는 경우 동일 교과목이 개설되고 있다면 캠퍼스간 교차 수업을 막아두고 있다. 이에 대한 질의에 학사종합지원센터 담당자는 “양 캠퍼스에 동일하게 개설되는 일반융합전공 수업들의 경우 교차수강이 허용되면 특정 캠퍼스에 수요가 몰려 교육 운영의 형평성과 효율성이 저해 될 수 있다”며 “향후 운영 여건이나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캠퍼스 접근성 부족 문제도 있었다. 외대학보가 찾았던 경희대 국제캠이 위치한 기흥구는 개발이 상당히 진행되었다. 그에 따라 10분 거리에 영통역이 있어 수도권 학생들의 통학에 편의성이 확보되어 있었다. 캠퍼스까지 달는 광역버스도 7개의 노선이 존재했고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를 합쳐 10개의 노선이 존재한다. 실제 M5107 버스로 통학을 시도해본 결과 구 서울백병원에서 승차해 국제캠 정문까지 50분 가량 소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해당 승차장까지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혼용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1시간 50분이면 이동이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글캠이 위치한 모현읍은 아직 개발이 진행중이기에 캠퍼스까지의 접근성이 많이 떨어진 다. 기조처 또한 ‘글캠의 물리적 접근성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요소이지 않느냐’고 말했다. 실제로 설캠에서 글캠까지 자차를 통해 이동했을 때 비첨두시 기준 50분 내외로 달을 수 있었으나 대중교통을 활용했을 때 마찬가지로 비첨두시 기준 약 2시간 50분이 소요됐다. 이를 보조하기 위해 주요 거점을 운행하는 셔틀버스가 존재하지만 일 5회만 운행하는 실정이며 그마저도 글캠 내 마지막 출발 시간은 18시 20분이었다. 7시에 수업이 끝나는 학생들의 경우 해당 셔틀 자체를 이용할 수조차 없는 것이다. 캠퍼스간 셔틀 버스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글캠에 재학 중인 I 씨는 “위치와 교통이 불편해서 글캠에 대한 인식에 분명한 장애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위의 설캠 재학생 E 씨도 “접근성이 낮아 시골에 소재한 학교 같다”며 “가기도 어려워 더욱 찾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런 낮은 접근성은 더욱더 글캠의 인식을 설캠과 다른 학교로 인식토록 한다.

학교 홈페이지와 입시 요강 등 대외적으로 비춰지는 인내에 관해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있었다. 학교 홈페이지의 학과 내열이 캠퍼스별로 구분되었다는 것과 입시

요강에서 캠퍼스별로 학과가 소개되었다는 점이 두 캠퍼스가 마치 다른 학교인 것처럼 외부인에게 보인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우리학교 정보지원처는 전략홍보팀을 통해 “별도의 이유와 의도를 가지고 그와 같이 나열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무시할 수 없는 요인, 입결

일련의 원인들은 양캠을 서로 다른 학교로 인식하는 학내외의 시선을 초래했다. 이는 양캠 간의 입학 난이도 차이를 야기했다. 실제 설캠 입학생의 평균 수능 백분위는 약 85점 내외에서 형성되는 반면 글캠 입학생의 경우 약 73점 정도로 12점 정도의 차이가 있었다. 수시 내 학과장추천전형에서 활용하는 수능최저학력기준도 설캠은 △국어△수학△영어△탐구 과목 중 2개 영역의 등급 합이 4 이내로 설정되었지만 글캠의 경우 한 개 영역의 등급이 3 이내이기만 하면 됐다.

상이한 입학 난이도는 ‘서로 다른 학교로 보이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실제로 위의 설문조사에서도 다수의 학생들은 “입결 차이로 인해 이원화캠퍼스 정책의 이행이 잘 안된다”고 답했다. 위의 G 씨 또한 “솔직히 입결 문제가 해소 안되면 이원화캠퍼스 정책의 성공적 이행이 어려울 것이다”고 답변했다. 위의 설문조사에서도 한 응답자는 “입시할 때부터 수능최저학력기준을 다르게 하는 것부터가 학교가 글캠을 분교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서로 다른 입학 난이도로 인해 설캠 학생들에게 학교의 이원화 정책이 ‘역차별’로 다가온다. 실제로 설문조사에 응답한 한 학생은 “이중전공 여석을 글캠 학생들이 가져가는 것이 차별로 느껴진다”고 밝혔다. 또 다른 학생은 “서로 다른 학교임을 받아들여졌으면 한다”란 답변을 적었다. 실제로 시험기간만 되면 이중전공 수업으로 인해 설캠 도서관을 사용하는 글캠 학생들에 대한 원망의 목소리가 에타에서 흘러나온다. 이에 대해 설캠 아시아언어문화대학에 재학 중인 I 씨는 “이원화캠퍼스 정책 추진 배경도 그리고 그 명분도 모두 이해한다”며 “그러나 엄연히 입학 난이도가 서로 다른 만큼 설캠 학생들 입장에서 이원화 정책의 추진이 역차별로 느껴진다”고 밝혔다. 그 주장의 논리적 타당성과는 별개로 현재 학생들 중 글캠에 대한 지원을 ‘역차별’로 생각하는 학생들의 수가 적지 않고 이것이 결국 상호 간 갈등의 씨앗이 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입결 문제는 해소할 수 없는 문제가 아니다. 실제로 성공 사례로 평가받는 경희대 또한 이원화 초기 설캠 소재

학과 입학자의 평균 수능 점수와 국캠 소재 학과 입학자의 평균 수능 점수는 약 5점 정도의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현 시점 이 차이는 1점 내외로 거의 없다시피 하다. 우리학교 기조처 또한 이를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조처는 “설캠과 글캠의 입결 차이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글캠을 수험생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로 만들 수 있도록 여러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아가야 할 방향

위의 경희대가 인식을 개선한 사례는 참고해볼만 하다. 경희대 국제캠에 재학 중인 J 씨는 “설캠이나 국제캠이냐 물어보거나 국제캠이라고 해서 차별하는 인식을 느낀 적은 한 번도 없다”며 “자소서에 학교명을 적을 때도 경희대란 하나의 항목만 있다”고 밝혔다. J 씨는 이런 인식이 가능해진 이유로 학생회의 노력을 언급했다. J 씨는 “과거 이원화의 이행이 미비했지만 학생회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미비점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느낀다”고 밝혔다.

실제로, 경희대 국제캠 총학은 이원화 이행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었다. 일례로 이들은 제53대 국제캠 총학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이원화캠퍼스 표기 오류 관련 사례를 조사하고 있었다. 또한 이들은 이원화 캠퍼스 이행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조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위의 J 씨는 “공공기관 인턴 지원 시 한편으로 캠퍼스 별도 표기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단 걱정이 있었으나 총학 차원의 노력 덕에 이러한 불안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학교 차원에서의 노력도 존재했다. 일례로, 우리와 달리 경희대의 경우 입시 요강에 캠퍼스 구분 없이 학과를 나열하고 있다. 홈페이지의 각 단과대학 설명에서도 캠퍼스 구분 없이 단과대학을 나열해 소개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서로 다른’ 학교란 인식이 변화할 수 있도록 각 대학 및 총학의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 캠퍼스를 분리해 표기토록 하는 채용 플랫폼의 정책에 대한 학교의 적극적인 대응도 필요하다. 캐치와 잡코리아를 비롯한 채용 플랫폼에서 분리해 학교를 명시해둔 곳에 합쳐 학교를 작성토록 하라고 조치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자칫 분교로 보일법한 오표기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다. 우리학교의 경우, 글캠 내 일부 점포의 경우 ‘용인의 대점’ 등으로 글캠을 오표기하고 있었다. 흥대의 세종캠 또한 ‘조직원홍대점’ 등으로 흥대 세종캠을 오표기하고 있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각 대학본부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 대학본부 측 적극적인 움직임이 실제로 오표기를 개선한 사례로는 중앙대의 경우가 있다. 2021년에 입시정보 사이트 ‘진학사’에서 안성캠을 분교로 설명하는 카드 뉴스가 올라와 논란이 불거졌다. 대학본부는 진학사의 잘못된 표기에 항의하고 카드 뉴스 수정과 사과문을 요구했다. 이에 진학사는 카드 뉴스 제작 시 착오가 생겨 안성캠을 분교로 잘못 표기했다고 해명했다.

양캠 학생들의 심리적 거리감 해소를 위해 양캠 학생

들이 동시에 참여하는 행사도 개최해야 한다. 실제로 위의 설문조사에서 공동 개최 행사의 확대 등을 주장하는 학생들은 22.7% 였다. 학생 F 씨는 “공동입학식의 재시행과 더불어 지난해 진행된 캠퍼스 교류전을 비롯한 공동 주최 행사가 더 많이 이뤄진다면 양캠 학생들간의 심리적 동질감이 좀 더 커지지 않겠나”고 말했다. 위의 중앙대와 경희대 재학생과의 인터뷰에서 살펴보았듯 학내 교류가 부족하다면 같은 학교라는 심리적 동질감이 생기기 어렵다. 우리학교 또한 지난 캠퍼스 교류전의 성공적인 개최에 이어 더 많은 행사와 사업을 개최할 필요가 있다.

캠퍼스의 특성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도 있다. 성균관대는 양캠을 ‘인문사회캠퍼스’와 ‘자연과학캠퍼스’로 명확히 구분하고, 이에 따라 단과대를 배치했다. 이와 같은 성균관대 모델이 모든 사례에 있어 적확하지 않더라도 각 학교는 캠퍼스가 가진 특성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규정하고, 그에 따라 개발해야 한다. 우리학교 또한 글캠이 가진 특성인 ‘실용적 융합학문’을 적극적으로 강조하고 또 홍보해 대외적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 더불어 새로 태어날 송도캠퍼스 또한 그와 같이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

◆우리학교가 해결해야 할 또 다른 문제

특히 우리학교의 경우 구조적 문제의 해소 또한 진행돼야 한다. 글캠 도서관을 비롯한 노후 시설을 빠르게 리모델링하는 동시에, 글캠 내 신설학과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와 학생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위의 경희대 재학생 J 씨는 “과거엔 학식이나 기숙사 등 일부 차이가 있었다고 들었으나 학생회의 지속적인 개선 노력으로 인해 이러한 차이는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글캠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선 글캠의 물리적 접근성을 확대하는 정책도 필요하다. 캠퍼스 셔틀을 더 증편하는 한편, 글캠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주요 거점을 방문하는 셔틀버스 또한 증편할 필요가 있다. 위의 I 씨는 “경기광주역 등 주요 거점을 방문하는 셔틀버스가 매우 부족하다”며 “대중교통도 부실한 상황에서 글캠까지 가기 너무 힘들다”고 밝혔다. 물리적 접근성을 높인다면 글캠에 대한 좋지 않은 인식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캠퍼스 간 인적, 학술적 교류도 용이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와 별개로 설캠 학생들의 ‘역차별 심리’ 또한 해소해야 한다. 설캠 학생들에게 글캠과 함께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또 설득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에 대해 기조처는 “글캠 없는 설캠은 중소형 규모의 대학이 될 것이다”며 “설캠을 포함한 양캠 모두 서로의 캠퍼스가 있어 지금의 위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것이니 만큼 두 개의 학교로 돌아가자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러한 지점에 입각해 설캠 학생들을 설득하려는 노력 또한 필요하다.

글캠 없는 설캠과 설캠 없는 글캠은 지금의 위상을 유지할 수 없다. 들어올 때의 입결보다 앞으로 ‘외대인’으로서 생존을 위해 소속과 상관없이 더욱 뭉쳐야 할 때 아닌가. 이런 인식 아래 갈등과 반목보다 화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학생△교직원△교수 모두의 고민이 필요할 때다.

기후 위기 시대, 대학이 바꾸는 캠퍼스의 풍경

기후 위기와 지속가능성은 더 이상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니다. 국내 대학들은 '그린 캠퍼스(Green Campus)' 정책을 통해 친환경 기반 시설을 구축하고 에너지 절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학생들의 환경 문제 해결 의지와 참여가 높아지며 대

학은 단순 교육 기관을 넘어 사회적 변화를 이끄는 핵심 주체로 주목받고 있다. △ 대학 내 친환경 정책과 실천 현황 △ 지속가능사회에서의 대학의 역할과 도전 과제 △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아보자.

◆대학 내 친환경 정책과 실천 현황

우리나라 대학들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지원 아래 '그린캠퍼스' 조성을 위한 다양한 친환경 정책과 실천 사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2011년부터 대학의 친환경 캠퍼스 조성사업을 시작해 지금까지 40여 개 대학에 예산과 기술지원을 해왔다. 또한 지난 2022년엔 △경상대학교 △고려대학교(이하 고려대) △광주교육대학교 △중원대학교 △한신대학교 5개 대학을 탄소중립 캠퍼스 실천 대학으로 선정해 3년간 총 18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들 대학은 △에너지관리시스템 도입 △탄소중립 선언 △ISO 14001* 환경경영시스템 인증 등 국제적인 친환경 기준에 맞춘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특히 국립공주대학교를 포함한 충청남도(이하 충남) 소재 대학 7개 대학은 지자체와 공동 협약을 맺으며 △고효율 친환경 건물 도입 △다회용기 확대 △ 일회용품 사용 절감 등 지역 사회 연계형 탄소중립 실천에 앞장설 뿐 아니라 캠퍼스 전체를 친환경적으로 전환하는 모델(Model)을 선도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교직원 주도 그린캠퍼스 프로그램 △ 지역 사회와 협력한 친환경 문화 확산 캠페인 △ 학생들의 자발적 환경동아리 활동 등 구성원 중심의 실천 프로그램이 활발히 확산되고 있다. 서울권 대학에서도 △그린캠퍼스 홍보대사 운영 △ 빗물 재활용 시스템 △ 태양광 발전 시설 등 다양한 친환경 실천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다. 서울대학교는 2030년까지 CO2 배출량을 절반으로 감축하는 중장기 목표를 설정했다. △고려대 △연세대학교 △한양대학교 등은 △국제 환경 인증 건물 온실가스 인벤토리(Inventory) 구축 △지역 사회 개방형 캠퍼스 모델 등을 통해 지역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확대하고 있다.

이처럼 최근 우리나라 그린캠퍼스 정책은 단순 시설 개보수와 에너지 절감에 그치지 않고 대학 내 구성원들의 친환경적 인식과 참여를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확장되고 있다. △녹색 캠페인 △생태 탐방 △지

역 연계 교육 △ 친환경 생활 체험 △ 환경 동아리 지원 등 실천적 활동이 정착되고 있으며 그린캠퍼스 홍보대사 프로그램과 대학별 우수 사례 포상제도도 활발히 운영 중이다. 그러나 최근 발표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학의 그린캠퍼스 정책 추진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지난해 발표된 "국내 그린 캠퍼스 추진현황 연구 - 관련 제도 고찰과 전국 대학교의 그린캠퍼스 추진실태에 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국 대학들의 실천 정도가 평균 22.3%에 불과했다. 해당 논문은 그 이유로 △예산 부족 △ 전문 인력의 부재 △ 제도적 지원 미비 등을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정부 차원의 지속적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은다. 박중수 한국지속가능캠퍼스협회 회장은 2022년 대학저널 인터뷰에서 "대학 내 체계적인 환경 교육 프로그램 강화와 구성원의 인식 개선 노력이 대학 친환경 정책의 성공 열쇠"라고 강조하며 "전담 부서 신설과 장기적인 그린캠퍼스 전략 수립이 이뤄져야 하며 국제 환경 인증과 디지털 평가 시스템 도입을 통해 추진 실적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우수 사례를 확산하는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속가능사회에서의 대학의 역할과 도전 과제

대학은 단순한 교육 기관을 넘어 기후 위기 대응과 지속가능사회 실현을 위한 △실천 △ 연구 △ 정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실제로 환경부와 교육부 공동자료에 따르면 국내의 △기후정책 전문가 △ 에너지 관리 시스템 △ 환경공학 분야가 온실가스 감축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 및 친환경 기술 개발에 힘을 쏟으며 △공공 캠페인 △ 대학 연구소 △ 지역 사회를 통해 그 효과를 확산시키고 있다. 충남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따르면 충남권 대학들은 협약에 따라 대학별 지속가능위원회를 구성하고 교직원과 학생이 △건물 △ 급식 △ 스승 △ 비구조 △ 행사 등

실생활 전반에 친환경 실천을 적용시킨 바 있다. 뿐만 아니라 △빗물저금통 △ 지열 냉난방 △ 태양광 발전소 등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와 환경교육 공모전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독일 베를린자유대학교(Freie Universität Berlin)와 같이 대학 내 지속가능성 및 에너지 관리 부서가 △데이터화 △ 온실가스 감축 △ 에너지 효율화를 공식적으로 관리하는 사례는 큰 시사점을 준다. 베를린자유대학교는 2020년 발간한 지속가능성 보고서 통해 △건물 △ 교육 △ 네트워킹 △ 에너지 △ 폐기물 및 활동 등을 포함한 대학 내 10여 분야에서 △ 녹색 리모델링 △ 에너지 모니터링(Monitoring) △ 자연순환 냉방 △ 지열 및 빗물 활용 △ 태양광 발전까지 통합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밝혔다. 또 독일의 트리어대(Universität Trier) 브리켄펠트 환경 캠퍼스(Umwelt Campus Wirkenfeld)는 대학 전체 에너지를 100% 재생가능에너지로 조달하며 탄소중립 대학의 대표적 롤모델(Role Model)이 되고 있는데 이는 2021년 독일 연방환경청 보고서에서 강조된 바 있다.

국내 대학 그린캠퍼스 정책의 한계를 분석한 허필윤 박사와 이용숙 교수는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선 대학 운영진의 확고한 의지와 함께 정부와 지역 사회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며 "아울러 정책 실행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전담 조직 구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견해는 지난해 발표된 '지속가능한 캠퍼스의 가능성과 한계: K대학교 그린캠퍼스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에서도 확인된다. 해당 연구는 국내 대학의 그린캠퍼스 추진 과정에서 기반 시설 확대뿐 아니라 구성원의 적극적 참여와 체계적 교육이 중요한 요소를 밝히고 있다.

◆나아가야 할 방향

대학의 친환경 정책과 실천은 기후 위기 시대에 필수 과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앞으로 △대학 △ 정부 △ 지역 사회는 △전담 조직 확대 △ 전문 인력 양성 △

중장기 그린캠퍼스 로드맵 수립 등 구체적이고 실행력 있는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 충남권 대학들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국제 환경 인증 및 평가제 도입 △지역 기반 협력사업 △ 학생 주도 환경 및 에너지 프로젝트 등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것 역시 중요하다.

관련 사업에 대한 여러 투자 또한 필요하다. 예산 및 제도 지원 강화는 △대학 현장 내 에너지 관리 시스템 고도화 △ 친환경 캠퍼스 실적 투명성 확보 △ 탄소중립 선언의 구체화에 기여할 것이다. 또한 △생태 탐방로 △ 자원순환 교육 △ 친환경 급식 캠퍼스 내 체험학습장 등 학생과 교직원 그리고 지역 사회가 직접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과 거버넌스(Governance) 확대가 필요하다.

나아가 △국내외 대학과의 공동연구 △ 글로벌 환경 평가 및 인증제 △ 해외 우수 사례 도입 등을 통한 국제 협력과 산학연계 또한 이뤄져야 한다. 일련의 협력은 지속가능한 캠퍼스 모델을 고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린캠퍼스 실천 성과는 미래 세대 인재 양성뿐만 아니라 지역 및 국가 단위 기후 위기 대응 정책의 중심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 이를 위해선 관련 기관과 공동체 간 상시 소통과 성과 및 한계 공유가 활발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대학이 만들어가는 작은 변화들이 모여 지속가능한 사회로 향하는 큰 발걸음을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이다.

*ISO 14001: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의 준말로 국제표준화기구 ISO의 환경경영 위원회(TC 207)에서 개발한 ISO 14001은 조직의 환경경영 시스템을 △개선 △ 실행 △ 유지 △ 모니터링하고자 할 때 적용 가능한 규격.

이나경 기자 10leenagyong@hufs.ac.kr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공공리더십대학원(야간) 2026학년도 전기 석사학위과정 신입생 모집

1. 2026학년도 전기 입시일정

구 분	특별전형(First Round)	일반전형(Second Round)
원서접수	2025.09.17(수) ~ 10.01(수)	2025.11.19(수) ~ 12.03(수)
고사장 발표	2025.10.15(수) 15:00	2025.12.10(수) 15:00
면접전형	2025.10.18(토) 10:00 예정	2025.12.13(토) 10:00 예정
합격자 발표	2025.10.31(금) 15:00	2025.12.26(금) 15:00
등록예치금 납부	2025.11.03(월) ~ 11.07(금)	2025.12.29(월) ~ 01.02(금)

2. 모집학과 및 전공

- 가. 의회행정학과(공공정책, 의회행정)
- 나. 외교안보학과(외교안보, 북한, 국가안보)

3. 지원자격(특별전형 및 일반전형 공통)

- 가.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26년 2월 졸업예정자
- 나.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 외교안보학과 국가안보전공 지원자격
- 가.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26년 2월 졸업예정자
- 나.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다. 군사 안보 전문 분야(예:군, 정보기관, 국가 안보 분야 등)에서 최소 1년 이상의 현장 경험을 보유한 자

4. 접수방법

- STEP 1 - 인터넷 원서작성 및 접수 (글로벌공공리더십대학원 홈페이지-입학안내-대학원 입학 안내-대학원 원서접수)
- STEP 2 - 인터넷 접수 후 입학원서 출력 및 기타 구비서류 교차제 제출
 - *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반드시 접수기한 내에 인터넷 원서작성과 서류 제출을 모두 완료하여야 합니다.

5. 전형방법: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 * 면접시험은 출석면접을 원칙으로 하고, 불참 시 불합격 처리됩니다.

6. 전형장소: 서울캠퍼스(면접 고사장 및 시간은 추후 공지)

7. 기타사항

- 가. 장학금: 장학금은 입학 후 장학위원회를 통해 결정됨
- 신입생 성적우수 장학금/성적우수 장학금/글로벌 장학금/학부간 장학금/원우회 장학금
- ※ 외교안보학과 국가안보전공: 입학성 전액 정규학기 등록금의 50%를 장학금으로 지급
- 나. 주말수업(토요일) 개설 / 평일수업 19시 시작(본 대학원 내 학과간 교차수강 가능)
- 다. 온라인 병행수업 진행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http://gsps.hufs.ac.kr> 및 모집요강 참조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교학처 사무2팀(글로벌공공리더십대학원)
 TEL. 02-2173-2428 FAX. 02-2173-3358
 (우) 024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이문동 270)



디지털융합인재를 양성하는 GMC대학원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원 2026학년도 전기 석사학위과정 신입생 모집(특별·일반 전형)

1. 2026학년도 전기 입시일정

구분	특별 전형 일정	일반 전형	장소
원서접수	2025.9.22(월) ~ 10.2(목)	2025.11.17(월) ~ 11.28(금)	유웨이어플라이 원서접수
서류제출	2025.9.22(월) ~ 10.2(목)	2025.11.17(월) ~ 11.28(금)	글로벌미디어커뮤니케이션 대학원 (대학원 11호) 우편제출은 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유효함
면접대상자 발표	2025.10.15(수) 15:00	2025.12.10(수) 15:00	개별 공지
면접전형	2025.10.18(토) 10:00	2025.12.13(토) 10:00	화상면접
합격자발표	2025.10.31(금) 15:00	2025.12.26(금) 15:00	홈페이지에서 확인
합격자등록	2025.11.3(월) ~ 11.7(금)	2025.12.29(월) ~ 2026.1.2(금)	우리은행 전국 지점 가산대학 납부가능

* 위 전형계획 및 시행일정은 정원 충원상황 및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모집학과 및 전공

- 가. 미디어비즈니스 · 엔터테인먼트 - 오프라인 과정
- 나. 디지털미디어융합전공 - 온라인 과정

3. 지원자격

- 가.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26년 2월 졸업예정자
- 나.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4. 접수방법

- STEP 1 - 인터넷 원서작성 및 접수
- STEP 2 - 인터넷 접수 후 입학원서 출력 및 기타 구비서류 교차제 제출

* 반드시 접수기한 내에 인터넷 원서작성과 서류 제출을 모두 완료하여야 합니다.
 *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기한 내에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최종 접수가 완료됩니다.

5. 전형방법: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 6. 전형장소: 화상면접(추후 공지)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gsgmc.hufs.ac.kr) 및 모집요강 참조

- 8.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원 교학처
 TEL. 02-2173-3282 FAX. 02-2173-3358
 (우)024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글로벌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원

민생회복 소비쿠폰, 활력인가 부담인가

지난 7월 21일 정부가 내수 진작을 위해 △선불카드△신용 및 체크카드△지역사랑상품권(이하 지역화폐)을 통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하 소비쿠폰) 정책을 시행했다. 소비쿠폰 정책은 침체된 경제 회복을 목적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 소득 수준

에 따라 생활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정책이다. 다만 이와 관련해 긍정적 평가와 비판적 시각이 함께 나타나고 있으며 전문가들의 의견 역시 엇갈리고 있다. △소비쿠폰에 대한 긍정적 반응△소비쿠폰의 우려 지점△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소비쿠폰에 대한 긍정적 반응

소비쿠폰은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 원에서 55만 원을 지급해 경제 회복과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매출 확대를 위해 도입된 제도다. 소비쿠폰은 제도 설계부터 전략적 장점이 돋보였다는 평가가 있다. 사용 기한을 명확히 설정하고 사용처를 지역 소상공인 매장으로 한정된 점이 제도의 핵심적인 특징이다. 이정한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이하 이 교수)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서 “기한이 정해진 쿠폰은 즉각적인 소비를 유도해 자금이 저축으로 묶이는 것을 방지하고 소비자들이 일정한 기간 안에 적극적으로 지갑을 열도록 유도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교수는 사용처 제한 조치에 관해 “소비를 지역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으로 유도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와 경제적 취약 계층 보호라는 정책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법이다”고 설명했다.

계층 및 지역별 차등 지원을 둔 것도 눈에 띈다. 이번 정책은 저소득층이나 인구감소 지역에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해 한정된 재정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실제 소비 진작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설계됐다. 이 교수는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계층에 집중적으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재정수수를 높일 수 있다”고 긍정적 전망을 제시했다. 즉 재정 투입 대비 소비 확대 효과를 크게 높였다는 분석이 나오며 결과적으로 △누가△어디서△언제 쓰도록 할지를 정교하게 설계해 △민생안정△소비 촉진△지역경제 회복에 기여했다는 평가가 존재한다.

실제 매출 증가로 이어졌다는 점에서도 소비쿠폰의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 한국신용데이터의 분석에 따르면 소비쿠폰 배포 한 달 후 전국 소상공인 평균 카드 매출액은 작년 동기 대비 6.44% 증가했다. 경상북도 경주시에선 소비쿠폰 이후 소상공인 매출이 6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세계일보에 따르면 소비쿠폰 지급 전후 매출을 비교한 결과 전체 매출은 약 68억 4500만 원에서 115억 200만 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소비쿠폰 지급으로 소비 심리도 함께 긍정적으로 개선됐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심리지수는 111.4로 전월보다 0.6포인트 올랐다. 이는 지난 2018년 1월 111.6을 찍은 이후 7년 7개월 만에 최고치다.

◆소비쿠폰의 우려 지점

한편 소비쿠폰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 역시 만만찮다. 특히 소비쿠폰을 통한 정책은 일시적 경기 부양책의 성격이 강해 장기적 경제 회복으로 이어지기 어렵다. 또한 정책이 안정적인 소득 기반 확충이나 구조 개혁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점에서 임시 처방에 불과하다 지적도 존재한다. 진중권 광운대학교 특임교수는 지난 7월 5일 TV조선에서 방영된 프로그램 ‘강적들’에서 “자영업 경기 침체는 일시적 문제가 아닌 구조적인 문제이다”고 한계를 설명했다. 일시적 소비 진작이 근본적 경기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것이다.

재정 투입을 통한 인위적 소비 확대는 물가 상승 압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도 한계가 있다. 단기간에 수요가 몰리면 자영업자 매출이 오르지만 이는 물가 전반의 상승으로 이어져 실질적 소비 여력은 줄어 들 수 있다. 일례로 지난 2020년 코로나 팬데믹(COVID-19 pandemic) 당시 지급됐던 긴급재난지원금 이후 한우의 물가가 3%대에서 10%까지 급등했던 사례가 있다. 해당 지원금은 약 한 달간의 매출 증대 효과에서 그쳤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속적인 매출 증대로는 이어지지 못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조선비즈와의 인터뷰에서 소비쿠폰 시행을 두고 “한두 달 효과는 있겠지만 이후 가격 상승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프라이مج체에 따르면 한 식품업계 관계자는 “원가 부담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할인이나 소비 자극은 지속적인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근본적인 생산성 향상과 유통 구조 개선이 병행되지 않으면 물가 안정은 요원하다는 것이다.

소비쿠폰 정책은 지원 대상과 방식에서 형평성 논란을 피하지 못했다. 우선 차등 지급 기준을 건강보험료 납부액에 둔 점에서 정확한 소득 판정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원에서 제외된 가구의 이의 신청이 잇따르는가 하면 지급 과정에서 발생한 사각지대가 국민 불만으로 이어졌다. 조선NS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엔 소비쿠폰 이의신청 창구에 3주 동안 6만 건이 넘는 민원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한편 일부 지자체는 차등 금액별 카드를 디자인과 색상으로 구분하거나 아예 수령 금액을 카드에 표기해 사생활 침해 논란까지 불러일으켰다. 광주광역시도 금액별로 카드의 색을 구분했으며 부산광역시도 카드에 수령금액을 표시해 생활 수준을 노출시켰다는 비판을 받았다.

소비쿠폰 사용처 제한도 형평성 담보 실패의 문제점으로 꼽힌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세금 납부지 기준과 가맹 구조를 반영해 △기업형 슈퍼마켓(Super Market)△대형마트(Mart)△백화점△지역 편의점 등은 사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소비자와 소상공인 사이에선 특정 업종의 제한에 대한 불만이 제기됐다. 특히 전북도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농어촌 주민들에게 사실상 유일한 생활 거점인 하나마트가 행정 기준 때문에 가맹점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나타나며 “실제 생활 환경과 동떨어진 제도 설계다”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기준△신청△사용 과정에 이어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불법 행위를 벌여 적발되는 사건도 발생하여 투명성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중고거래 플랫폼(Platform)을 통한 개인 간 현금화가 성행했으며 전라북도 군산시에선 정식 사용처가 아니에도 결제 단말기를 불법 대여받아 결제를 처리한 업소들이 적발됐다. 단순한 행정 미비를 넘어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한 것이다.

◆나아가야 할 방향

소비 진작 효과를 이루며 성과를 거뒀지만 여전히 개선 과제는 남아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희원 대한상의 유통물류진흥원장은 “새 정부 출범과 소비 진작책에 대한 기대감이 크지만 실제 소비 회복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속적 정책의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하반기에 있을 내수 진작 행사와 더불어 중장기적으론 국제적 기준에 맞는 규제 개선 그리고 신산업 육성 지원 등을 통해 성장과 소비 여력을 확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잘 팔리게 만드는 쿠폰’을 넘어 ‘지속 가능한 내수 엔진’을 설계해야 할 때인 것이다. 이진훈 변호사는 한경 로엔비즈의 ‘Law Street’ 칼럼에서 “단기 소비 진작은 이후 재정 부담과 복지 제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책인 만큼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을 근본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미래 세대의 부담까지 고려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단순히 소비 활성화를 넘어 지역 내 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지속 가능한 경제 활성화를 달성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가계의 안정적 소득 지원△자영업자의 고

정비 경감△지역경제 자생력 강화가 함께 작동해야 한다. 저소득 근로가구에 세액 환급과 정기적 현금 지급을 제공하는 미국의 근로장려세제(Earned Income Tax Credit)는 가계의 안정적 소비 여력을 뒷받침해 지역 내 수요를 꾸준히 유지시키는 효과를 보였다. 이러한 안정적 소득 기반은 결국 지역 상권으로 소비가 흘러 들어가며 선순환을 촉진한다.

정교한 물가 관리도 병행돼야 한다. 물가 상승으로 인한 가격 불안에 대비해 공급 안정 대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소비쿠폰 사용 현황을 분석한 뒤 2차 추경과 쿠폰 확대에 대비한 물가 안정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고 밝혔다. 예컨대 원자재와 식자재에 대한 △공공 비축 물량의 탄력적 방출△신속한 물류 지원△한시적 관세 인하 등이 뒷받침되면 소비 진작 효과는 살리면서도 물가 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다.

형평성과 투명성 제고 역시 제도의 신뢰를 떠받치는 축이다. 지급 기준과 금액 선정 원칙을 명확히 설명하고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안내할 때 혼선을 줄일 수 있다. 아울러 부정 유통 행위에 대한 철저한 관리 및 감독도 필요하다. 이에 대해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쿠폰이 본래 목적대로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부정 유통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의신청 제도 간소화 및 편의화와 지자체별 신속 처리 체계 정착도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이다. 이처럼 제도의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신속히 수습하며 보완해 나가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 향후 진행될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단발적 부양책이 아닌 지속 가능한 성장의 발판으로 기능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한계소비성향(Marginal Propensity to Consume): 추가 소득이 발생했을 때 그 소득 증가분 중 소비에 사용되는 금액의 비율을 의미한다.

**스타그플레이션(Stagflation): 침체(stagnation)와 물가상승(inflation)의 합성어로 경제 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반되는 현상이다.

백채린 기자 11chaelin@hufs.ac.kr

www.사사한줄토막.com

정치 | 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 심사, 내란 방조 등 6개 혐의

지난달 27일 내란 및 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하 특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이하 한 전 총리)에 대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전직 국무총리에 대한 이와 같은 심사는 헌정사상 처음 있는 사례다. 특검은 한 전 총리에 대해 △공공 서류 손상△내란 유도△방조△위증△허위공문서 작성 등 총 6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

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전 총리는 계엄을 반대하려는 의도로 국무회의를 제안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특검팀은 비상계엄 당일 일부 국무위원이 대통령실에 도착했음에도 회의가 즉시 종료된 점 등을 근거로 한 전 총리의 해당 발언이 허위라고 판단 중이다. 이번 사건은 고위 공직자의 책임성과 사법 절차의 공정성을 시험하는 중대한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사회 | 이태원 참사 유가족, 용산구청 수상 취소·사과 요구해

지난달 27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서울시가 주최한 ‘2025년 지역축제 안전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용산구청이 대상인 것에 대해 수상 취소와 더불어 공개 사과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두 단체는 성명을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부적절한 시상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용산구청의 수상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시상은 지난달 22일에 진행됐으며 용산구는 ‘용산이 함께하는 할러윈(Halloween) 대비 다중 인파 안전관리’를 주제로 지난해 할러윈 기간에 이태원 일대에서

진행한 안전 대책을 발표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할러윈 축제는 주최자가 없었고 참사 당시 책임을 부정해 온 주체가 바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다”라며 “지자체의 상이 단지 사후 대응의 일환이라면 이는 피해자들의 상처에 대한 몰이해와 도덕적 감수성 결여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현재 서울시와 용산구청은 해당 요구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으며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해 행정 당국이 어떤 대응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경제 | 150억 신용대출 사기 일당, 부동산 투자 미끼로 동료 수십명 피해

지난달 27일 세종경찰청 강력·마약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총책 A 씨 등 주범 3명을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공범 1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직장 동료 40여 명의 명의를 도용해 150억 원대 대출금을 빼돌렸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일당은 지난 2022년 6월부터 올해 1월 까지 시중 금융기관 15곳에서 8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명의로 대출을 실행해 총 150억 원을 가

로첸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총 47명으로 대부분 A 씨가 근무하던 직장의 동료였으며 1인당 피해금은 약 3억 원에 달했다. 범죄 수익금은 다른 피해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공범 수당 지급△대출금 상환△사치품 구매△생활비이자 돌려막기 등에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민생 침해 금융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다”라며 범죄수익금 몰수 및 추징 보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국제 |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앞두고 공세 강화하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에너지 시설 공격이 한동안 소강상태를 보이다 최근 다시 격화되고 있다. 지난달 26일 뉴욕 타임스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은 지난달에만 최소 10차례 이상 러시아 본토의 석유 시설을 공격했다. 양국은 올해 초 에너지 시설 공격 중단에 합의했으나 미국 주도의 평화 협상이 진행되며 종전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공격이 재개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러시아 전체 정규 전력의 약 17%가 한때 마비됐으며 휘발유 도매가는 지난 7월 중순부

터 8월 중순까지 한 달간 12% 급등했다. 안드ريان 프로킵(Andrian Prokip) 케넨(Kennan) 연구소 연구위원은 “우크라이나로선 협상 와중에 러시아에 압박을 가하는 중요한 지렛대다”라고 평가했다. 뉴욕 타임스는 최근엔 미국이 주도하는 종전 협상에서 양측이 전략적 우위를 확보하려는 의도로 전환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시의성과 설득력

시의성은 당시의 사정과 사회의 요구에 맞는가를 뜻하는 단어로 방중교육에서 나는 '시의성을 갖춘 기사'를 거듭 강조해 배웠다. 그때 시의성이 뉴스의 당연한 덕목이라 여겼지만 기사를 쓰면서 시의성은 종종 나에게 족쇄로 작용했다. 첫 기사로 기후변화에 대해 다루고 싶었으나 시의성과 거리가 멀었다. 기후변화에 대해 다룬다 하더라도 칼럼(Column)이 아니라 기사로서 다루는 것이 어려웠다. 기사로 풀어내려면 새로운 정보가 필요했다. 그 지점에서 시의성이 보도의 핵심 기준이 되면서 동시에 주제에 대한 한계가 될 수 있음을 배웠다.

사회가 원하는 팩트(Fact)를 찾고 전하는 일은 기자의 본분에 가깝다. 팩트에도 우선순위가 있다. 그중 속보는 다른 팩트에 비해서 높은 가치가 매겨진다. 따라서 사회가 원하는 정보를 빠르게 찾고 전달하는 것 다시 말해 시의성을 갖춘 기사를 작성하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시의성만으로 보도의 의의를 갖추기 어렵다.

기사뿐만 아니라 주변을 둘러보면 우리 사회가 시의성에 얼마나 큰 가치를 부여하는지 알 수 있다. 한 음식이 유행을 타면 어디서든 그 음식이 눈에 띄기 시작한다. 기업도 마찬가지다.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이하 AI)이 부상한 이후로 각종 기능 앞에나 AI가 붙여지기 시작한다. 그러나 막상 기능을 사용하면 이게 AI가 맞는 건가 싶을 것도 있으며 유행하는 음식을 먹고 나면 이게 왜 유행하는지에 대해 의문이 들기도 한다. 이게 정말 맛있어서 유행하는 것이 아닌 유행해서 유명해진 느낌을 받는다. 별 내용이 없던 것을 인지한 후에야 자연스럽게 묻혀온다.

식당과 기업도 시의성을 쫓는다. 문제는 사회의 요구를 무작정 좇다 보면 왜 사회가 이를 필요로 하는지 놓쳐버린다. 겉은 화려해 보이지만 내용의 설득력은 빈약하다. 마찬가지로 기사 주제를 정할 때 시의성을 기준으로 찾다 보면 여러 주제가 나오지만 과연 설득력이 있을 수 있는 내용인지 회의감이 든다. 기사는 수필과 다르게 독자 중심의 글이다. 단순히 내가 좋아하는 주제를 적는 것이 아닌 읽고 싶은 글을 써야 한다. 어떻게든 관심을 끌고 흥미로워 보여야 한다. 그렇다 보니 시의성을 고려하면서도 주제 안에서 설득력을 스스로 발견해야 한다. 주제를 찾는 것 자체로도 힘들지만 무엇보다 그 주제를 어떻게 하면 설득력 있게 적을지가 정말 어렵다. 그래서 질문을 적극적으로 던지려고 한다. '이 기사를 왜 쓰려고 하는지'가 나에게 먼저 설득 돼야 한다. 다음으로 '왜 이 기사를 독자들이 읽어야 하는지'에 대해 질문한다. 그런 과정을 거치고 나서야 정말 문제가 무엇인지 드러난다. 시의성은 팩트의 결면이다. 반면에 설득력은 팩트의 내용이다. 왜 지금 사회가 이 내용을 원하고 있는지 질문해야 한다.

시의성 속에서 설득력을 발견하는 작업은 사회에 관심을 기울이는 일이다.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는 작업이다. 주변 일에 경청하고 내 입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일이 기자의 본질이 아닐까. 나는 흘러드는 사람이었다. 뉴스에서 나오는 일들이 나와 관계없는 일이라며 무관심했었다. 무언가를 골똘히 고민하는 일이 오랜만이다. 평상시엔 "너무 생각 없이 살고 있나"란 생각이 든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나면 그 안에서 굳어진 것은 없고 나의 하루가 휘발된다. 내 안에 무언가 남는 속도보다 날아가는 속도가 빨라 가벼운 존재로 살아간다. 외대학보에서 아직 첫 기사를 내보내지 않았지만 주제를 고르는 과정에서 '지금'보다 '지속'의 가치를 배운다. 주제 분석은 기자의 설득력을 찾는 작업이기도 하지만 결국 내 말의 설득력을 찾는 작업이다. 나는 설득력이 있는 존재로서 시간이 지나도 묻히지 않는 사람이 됐으면 한다.



박서현 기자

[책 '여행의 이유'를 읽고] 여행, 나를 잊기 위한 여정

여름 방학이 끝나고 학교에 다시 활기가 돌기 시작했다. 방학 중엔 어디론가 훌쩍 여행을 다녀온 학우들도 있을 것이다. 여행은 왜 우리를 설레게 할까? 김영하 작가의 산문집 <여행의 이유>는 그 질문에 대한 깊은 사유를 담고 있다.

작가는 먼저 '여행(travel)'이라는 단어의 어원부터 짚어본다. 놀랍게도 이 단어는 △고역△고통△노동을 의미하는 고대 프랑스어 'travail'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과거의 여행은 삶의 터전을 잃거나 공동체에서 추방당한 이들의 고된 여정이었고 종교적 순례처럼 숭고한 목적이 있더라도 그 과정은 험난하기만 했다. 그렇기에 여행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보상 즉 영생의 비밀이나 위대한 글감 같은 소중한 무언가를 얻어 돌아와야 한다는 관념이 있었다. 현재의 우리가 자처해서 떠나는 여행에서 기대하는 해방감이나 즐거움과는 거리가 멀다.

오늘날 우리가 여행을 떠나는 이유는 조금 다른 곳에 있는지도 모른다. 작가는 데이비드 실즈(David Shields)의 말을 인용하며 때론 여행이 "행복을 찾기 위해서가 아닌 자신들의 슬픔을 몽땅 흡수한 것처럼 보이는 물건들로부터 달아나기 위해" 필요하다고 말한다. 오래 살아온 집은 안식의 공간인 동시에 '상처의 쇼윈도'이기도 하다. 벽지의 얼룩처럼 지워지지 않는 기억과 가족에게 받은 상처들이 집 구석구석에 스며들어 있다. 여행은 바로 이런

익숙한 고통으로부터 잠시 멀어지는 행위라는 것이다.

낯선 곳에 도착한 여행자는 필연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자(Nobody)'가 된다. 나를 규정하던 △사회적 정체성△수많은 관계△책임감에서 벗어나 오직 △극적△나이△성별 같은 단순한 기호로만 존재하게 된다. 작가는 이것이 바로 여행의 본질일 수 있다고 말한다. 내가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서가 아닌 내가 누구인지를 잊기 위해 잠시 떠나는 것.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부터 벗어나 낯선 곳에서 먹고 잘 곳을 구하는 '현재'만이 중요한 순간을 마주하는 경험이 바로 여행이다.

모든 것을 잠시 내려놓는 여행의 끝은 어디일까? 작가는 오디세우스(Odysseus)의 여정을 통해 그 답을 암시한다. 온갖 모험 끝에 페넬로페(Penelope)의 침대로 돌아온 오디세우스에게 고통스러웠던 여행의 목적은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기 위함이었다. 여행을 통해 우리는 잠시 스스로를 비워내고 그렇게 확보한 공간을 다시 채우며 나아갈 힘을 얻는다. 여행은 더 이상 무언가 대단한 것을 얻어와야만 하는 고역이 아니다. 이번 방학에 여행을 다녀왔다면 어지러운 마음을 잠시 비워낸 것만으로도 그 여행은 충분한 이유가 되었을 것이다.

윤고는 기자 10goeun@hufs.ac.kr

[영화 '노트북'을 보고]

사랑이 끝난 곳에서도 사랑으로 남아 있는 사람

1940년대 여름 시골 마을에 내려온 부잣집 아가씨 엘리(Allie)와 자유분방한 청년 노아(Noah)는 운명처럼 만나 사랑에 빠진다. 그러나 신분과 가정환경의 차이는 두 사람을 갈라놓았고 결국 첫사랑은 가슴 아픈 이별로 끝난다. 시간이 흘러 각자의 길을 걷던 그들은 우연히 다시 재회하여 여전히 뜨겁게 서로를 사랑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그러나 엘리에게 이미 결혼을 약속한 약혼자가 있어 갈등은 깊어지고 그녀는 결국 평생의 사랑과 안정된 미래 사이에서 인생의 가장 큰 선택을 마주하게 된다.

노아가 엘리와 헤어진 뒤 쓴 편지가 기억에 강하게 남는다. "최고의 사랑은 영혼을 일깨우고 더 많은 걸 향해 손을 뻗게 해. 언젠가 머나먼 곳에서 각자의 삶을 살다 마주치면 기쁘게 웃어줄게..." 아직 인생을 논하기엔 어린 나이지만 이 영화를 보면 사랑에 대해서만큼은 글로 표현하고 목소리를 내고 싶은 충동이 든다. 아마도 그것은 '사랑의 힘'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 영화의 결말을 해피엔딩이라 단정할 수 있을진 잘 모르겠다. 영화에선 엘리와 노아가 다시 함께한 뒤의 구체적인 삶은 나오지 않는다. 다만 노년의 엘리와 병든 몸으로도 여전히 노아를 깊이 사랑하는 모습은 그녀가 후회없는 선택을 했다고 짐작하게 한다.



문득 요즘 시대의 사랑을 돌아보면 온전하지 못한 사랑의 형태가 많다는 생각이 든다. 빠르게 변하는 사회와 복잡한 관계 속에서 사랑은 종종 왜곡되고 때론 우릴 지치게 만든다. 하지만 그만큼 다양한 사랑의 모습이 존재하며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되묻게 한다. 정호승 시인의 시 봄길엔 이런 구절이 있다. "같이 끝난 곳에서도 스스로 봄길에 뒹굴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사랑이 끝난 곳에서도 사랑으로 남아 있는 사람이 있다." 노아와 엘리는 서로에게 그런 존재였을까. 사랑이 아무리 완벽해 보여도 그 안에서 피할 수 없는 후회와 저마디의 사연이 깃들어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그런 후회조차 사랑의 일부일 수 있다.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땐 후회는 더 이상 아픔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랑의 의미로 남기 때문이다. 이 글을 읽는 모두가 각자 버리는 사랑을 해보길 바란다. 가슴 떨리는 사랑을 때론 가슴 아픈 이별을 경험하길 바란다. 그리고 사랑을 시작한다면 그 사랑의 형태가 안전하길 엘리와 노아처럼 사랑이 끝난 곳에서도 사랑으로 남아 있는 사람과 사랑하길 바란다.

이나경 기자 10leenagyong@hufs.ac.kr



외대학보 독자위원회를 모집합니다

2025년도 2학기 동안 외대학보를 비평해주실 독자위원을 모집합니다.

- ◆ **활동내역** 2025년 2학기 외대학보 1106~1111호 비평 후 비평문 작성 (총 5회, 개인 당 1~2회)
- ◆ **모집단위** 서울캠퍼스 3명/ 글로벌캠퍼스 3명
- ◆ **모집기간** 9월 5일(금)까지
- ◆ **지원방법** 문자메시지 혹은 외대학보 페이스북 메시지로 이름, 캠퍼스, 학과, 학번 제출
- ◆ **지원자격** 학부생, 대학원생, 교직원 등 성실하게 참여할 수 있는 우리학교 구성원
- ◆ **활동혜택**
 - 비평문에 대한 소정의 원고료 지급
 - 독자위원회 토론 시 경비 지원
- ◆ **문의** 서울 백채린 기자 010-4086-3310 /글로벌 박서현 기자 010-4246-6849

독자위원이 써 주신 비평문은 매 호 외대학보에 실립니다. 학보도 꼼꼼히 읽고 사람들과 만나 토론하고 싶은 **지식인을 환영**합니다.

노사 갈등, '노란봉투법'이 해법 될까... 남은 법적 쟁점과 사회적 과제는

지난 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하 노란봉투법)'이 우리 사회에 큰 파장을 던지고 있다. 노란봉투법을 두고 노동계는 헌법상 노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입법이라며 환영하는 반면 경영계는 불법 파업 조장과 산업 생태계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관련 효과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노란봉투법의 법적 쟁점들과 앞으로의 사회적 과제를 우리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정 교수와 알아보자.

이정 우리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Q1. 노란봉투법의 입법 논의가 시작된 배경이 궁금합니다.

노란봉투법에 대한 논의는 지난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경영상 어려움을 겪던 쌍용자동차는 구조조정을 단행하려 했고 노동조합(이하 노조)은 이를 파업으로 맞섰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파업을 불법으로 판단했고 쌍용자동차는 노조와 조합원들에게 생산 차질 등으로 발생한 47억 원의 손해에 대해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조합원 개개인이 감당하기 힘든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는 노조 탄압이라는 사회적 비판을 야기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 시민이 과거 월급봉투를 의미하던 노란 봉투에 4만 7천 원을 담아 "보태 써달라"며 언론사에 보냈습니다. 이 사연이 보도되며 노동자들을 돕자는 시민운동이 일어났고 노란봉투법 입법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Q2. 노란봉투법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요?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로 △노동쟁의 대상의 확대△사용자의 범위 확대△손해배상 책임의 제한이 있습니다. 우선 가장 큰 변화는 사용자의 정의가 넓어진 것입니다. 이전엔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만을 사용자로 봤습니다. 그러나 이전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없더라도 하청업체 노동자의 근로 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하고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 원청업체도 사용자로 인정됩니다.

나아가 파업과 같은 노동쟁의의 대상 범위도 넓어졌습니다. 과거엔 임금 인상이나 복지 시설 확충처럼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문제라면 파업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회사의 △구조조정△인수 및 합병△해외 투자와 같은 경영 판단에 관한 사안에 대해서도 노조가 이의를 제기하며 파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업으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을 묻는 방식도 크게 바뀌었습니다. 우선 정당성이 인정될 때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되는 활동의 범위가 기존의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에서 더 넓은 개념인 '노조활동' 전반으로 확대됐습니다. 또한 법원에서 파업이 불법으로 인정되면 파업을 주도한 개인의 △역할△지위△책임의 정도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 배상액을 달리 정하게 됩니다.

Q3. 노란봉투법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가져온 이유가 궁금합니다.

노란봉투법은 우리나라 산업의 근간인 원청 및 하청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에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수백 개의 하청업체를 둔 대기업이 하청 노조의 파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며 산업계 전반에 긴장감이 높아졌습니다. 또한 국내 대기업의 해외 공장 이전 및 해외 투자 확대와 외국계 기업의 국내 투자 철수를 가속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반복되는 파업과 노무 관련 위험을 피하고자 기업들이 공장 자동화에 대한 투자를 늘리게 되면 결국 제조업의 대규모 실업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는 단순히 노사 관계를 넘어 국가 경제와 산업 경쟁력 전반에 걸친 문제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Q4. 노란봉투법에 대한 노동계와 경영계의 핵심 논리가 궁금합니다.

노동계는 원청 대기업에 비해 열악한 하청 노동자들의 임금 격차와 노동 시장의 이중구조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원청을 상대로 직접 교섭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반면 경영계는 해당 법안이 기업의 경영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파업을 조장하며 손해배상 청구를 어렵게 만들어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Q5. 노란봉투법이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고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 원칙에 어긋난단 주장은 법적으로 타당한가요?

일반적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러 손해를 끼쳤을 경우 민법은 가해자 모두에게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부진정연대책임*을 적용합니다. 이전까진 불법 파업이 발생하면 회사는 이 원칙에 따라 노조와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들을 상대로 손해액 전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란봉투법은 각 개인의 책임 범위를 개별적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합니다. 즉 파업 주동자인지 단순 참여자인지 등 △가담 경위△역할△지위에 따라 배상액이 달리 정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회사가 불법 파업으로 막대한 손해를 입어도 그 책임을 입증하는 것을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게 만듭니다. 손해배상 청구 절차가 까다로워져 기업이 손실을 보전받을 권리 즉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이 심각하게 제한될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됩니다.

Q6. 현재 노란봉투법의 노동쟁의 개념 확대가 경영권 침해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학술적 견해가 궁금합니다.

니다.

과거엔 파업과 같은 노동쟁의가 임금 인상이나 복지 확대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에만 한정돼 정당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실제로 과거 쌍용자동차 파업이 불법으로 판정된 핵심적인 이유도 파업의 목적이 당시엔 정당한 쟁의 사유로 인정되지 않던 경영상 판단에 해당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노란봉투법은 이러한 기준을 변경해 △구조조정△사업부 해외 이전△인수 및 합병과 같은 경영 판단에 관한 사안까지 노동쟁의의 대상으로 포함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회사가 사업 축소나 공장 이전과 같은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 노조가 단체교섭을 요구하면 반드시 응해야 될 수도 있으며 이를 거부할 시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해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업의 신속하고 전략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제동이 걸려 전체적인 경영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영권 침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Q7. 노란봉투법이 통과된 이후에도 여전히 법원의 해석에 따라 그 실효성이 좌우될 것이란 의견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불확실성이 커진다고 보시나요?

이러한 의견이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법의 핵심 조항이 추상적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사용자 범위를 정의하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라는 표현입니다. 어떤 경우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력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 얼마든지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호성은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해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하청 노조의 정당한 단체교섭을 원청이 거부할 경우 이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노란봉투법은 형사처벌을 전제하고 있는 만큼 그 기준을 명확한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소위 ***죄형법정주의를 대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처럼 불명확하고 애매한 규정을 전제로 처벌이 이루어진다면 해당 원칙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Q8. 노란봉투법이 우리나라 노동 현장에 직접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변화는 어떤 것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기업의 고용 및 계약 형태에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실질적 지배력'의 근거를 없애기 위

해 특정 원청에 전적으로 종속된 영세 용역업체와의 계약을 피하고 여러 기업과 동시에 거래하는 대형 용역업체를 선호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청소나 시설용역과 같이 영세한 용역업체가 특정회사에 거의 종속되어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소위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여러 회사의 용역을 하는 대규모 용역회사를 선호하는 경향이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영세한 하청기업이나 용역업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목적과는 반대로 오히려 영세 하청업체 및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역설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Q9. 노란봉투법이 노동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선 시행되기 전 6개월 동안 어떤 정책적 보완과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기존의 노동관계 법제와 충돌하는 지점에 대한 고려 없이 법안이 통과됐다는 점은 향후 현장에서의 혼란을 예고하는 대목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와와의 충돌 문제입니다. 현행 제도는 단일 사업장 내에 복수의 노조가 존재할 경우 발생하는 교섭의 비효율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설계된 장치입니다. 노란봉투법에선 원청을 상대로 수많은 하청업체 소속 노조가 동시에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는데 다수의 기업에 걸친 교섭 단위를 어떻게 단일화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 규정은 없는 실정입니다. 이는 개정안의 안정적인 현장 적용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입니다. 따라서 법 시행 이전에 이와 같은 절차적 혼란을 해소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부진정연대책임: 여러 명의 채무자가 동일한 내용의 채무에 대해 각자 독립적으로 전부 이행할 의무를 지는 법적 관계

**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노동3권을 침해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죄형법정주의: 어떤 행위가 범죄인가 아닌지 또는 그 범죄에 대하여 어떤 형벌을 내릴 것인가 하는 것은 법률에 의해서만 정할 수 있다는 원칙